朝鮮日報
夕刊 四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正咳露 京城府和泉町 株式會社 同和藥房

大角海相招致코 海軍側情勢聽取
內務省中堅官吏園公에嘆願
總注目園公에게集中

西園寺公

大角海相

【東京電話電通】海軍에서는 今回 東京事件發生後 即時 首腦部會議와 軍事參議官會를開하고 事件鎭靜에 關한 態度를 決定하는同時에 第一艦隊及 橫須賀警備戰隊를 品川沖에 集結하고 陸軍側과 密接한 聯絡을 保持하면서 善後措置에 萬全을期하고 잇스나 海軍傳統의 沈默을 직히고 今回事件에 對해서는 何等積極的意思表示를하지안헛다 그런데 西園寺公은 後繼內閣의 首班을 銓衡함에 當하야 爲先陸軍部內의 情勢를 聽取한後 今明日中에 大角海相을 招致하고 海軍側의 情勢와 時局收拾에 對한 意見을 聽取할것으로 看取되며 이境遇에 大角海相은 처음으로 沈默을 깨트려 如左한 骨子에 基하야 海軍側의 總意를 率直히 披瀝하야 老公의 態度決定에 極히 重要한 資料를 提供할것으로 보인다

一、時局은 極히 重大하므로 愼重히 今回事件의 根源을 考究하야 拔本塞源的方策을講究할 必要가 잇기때문에 이에는 歸一化를 圖함必要가잇다

一、國家의 制度組織各種機構等의 急激한 變革을行하는것은 避하지안흐면 안될것이나 後繼內閣의 首班인 人物은 國防의 重要性을 認識하는 同時에 時勢를 洞察하야 逐次必要한 修正을 加할 有力도는 練達堪能의 士를 薦하야 强力推 內閣을組織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東京電話電通】刻下의 超非常時局에 對하야 참으로國家의 安定을 期함에 足한 內閣의 成立을 希望하는者는 官民의 모다 念願不已하는바인데 內務省中堅官吏는 內務省系首腦官吏의 態度로서 今回의 事件處置에 對하야 反省할것이 만히 잇다는것을 感하는 同時에 西園寺公에 對하야 時勢를 憂慮하는 心血을 傾注한 嘆願書를 提出하기로決定하고 이미右 嘆願書는 後藤內相의 手를 거처 西園寺公에게 提出되엇슬터이다 그리고 右嘆願書內容은 如左하다

一、治安維持는 當面의 糊塗策으로는 到底히 바랄수업다 참으로 國體의 本義에 立脚하야 一君萬民大義에 則하야 國民生活의 厚生을 實現함에 依하야서만 참된治安은 實現可能이라고밋는다

一、따라서 此際에 國內各方面으로부터 淸新有爲의 人材를簡拔하야 右大事業을 할수잇는 新內閣을 組織할수잇도록 閣下는 上御一人을 輔弼하심에 當하야 閣下의 御努力을 仰請한다

그리고 右嘆願書와 同趣旨의것을 地方警察部長도 亦是後藤內相에게 提出하엿다고한다

緊急勅令으로 軍法會議法改正
今日政府에서發表

【東京電話電通】今回事件에 關한 緊急處置로 緊急勅令으로써 軍法會議法의 一部를 改正하기로 되어 四日樞府本會議에 附諮決定된것으로써 政府는 今日午後二時 右內容을 如左히 發表하얏다

改正要旨는如左하다 東京에 陸軍軍法會議를開하고 今回事件의 善後措置를講究하다

勅令內容

【東京電話電通】三月四日 官報號外로써 左의 勅令이 公布되엇다

朕 茲에 緊急의 必要잇슴을 認定하고 樞密顧問의 諮詢을 經하야 憲法第八條第一項에依하야 東京陸軍軍法會議에 關한 件을裁可하야 이를 公布케함

御名御璽

昭和十一年三月四日

各國務大臣副署

勅令第二十一號

第一條 東京에 東京陸軍軍法會議를 設함

第二條 東京陸軍軍法會議는 陸軍大臣으로써 長官으로함

第三條 東京陸軍軍法會議는 陸軍軍法會議法第一條乃至第三條에記載한者의 犯한 昭和十一年二月廿六日事件에關한 被告事件에對하야 管轄權이 有함

第四條 師團軍法會議의 長官은 搜査의報告를 受한前條의 被告事件은 東京陸軍軍法會議長官에 移送할것

前項의規定에依하야 東京陸軍軍法會議의長官이 事件의移送을 受한時는 搜査의報告가잇는것으로 看做하고 處分할것

第五條 東京陸軍軍法會議는 陸軍軍法會議法第一條乃至第三條에 記載한 以外의者가 同法第一條乃至第三條에 記載한者와 共히 昭和十一年二月二十六日事件에서 犯한罪에對하야 裁判權을 行함을得함

第六條 東京陸軍軍法會議는 陸軍軍法會議法中의適用에 關하야는 此를 特設軍法會議로看做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施行함

陸相、事件顚末報告

【東京電話電通】四日의 樞密院本會議에서 重要案件을 滿場一致可決하고 天皇陛下入御後 樞府顧問官、關係閣僚는 殘留하야顧問官의 質問에 對하야 川島陸相으로부터 詳細히 事件顚末을 說明報告한바잇섯다

後繼內閣首班으로 近衛公에大命降下

【東京至急電話同盟】後繼內閣首班은西園寺公의奏薦에依하야四日午後三時三十分 近衛公에게 大命降下

西義一陸軍大將 敎育總監에就任
中村總監代理는被免

【東京電話至急報電通】敎育總監은 如左히 後任이 決定되어 四日 川島陸相으로부터 內奏를 經하야 五日發令될터이다

軍事參議官 陸軍大將 西義一
補敎育總監兼軍事參議官
敎育總監本部長
敎育總監代理 陸軍中將 中村孝太郎
免本職
敎育總監代理被免

(寫眞은 西義一大將)

尨大한英國軍備計畫

【倫敦三日發電通】英國政府는 三日 政府의軍備充實計畫의具體的內容을 如左히 화이트페퍼의 形式으로 發表하엿다

一、一九三七年末까지에 主力艦 二隻을 새로 建造할것

二、建造各主力艦의 裝備近代化는 依然 이것을 繼續할것

三、今年度中에 新巡洋艦五隻을 建造하야서 全巡洋艦兵力을 七十隻되게할것

四、驅逐艦、潛水艦의 老朽化한 것은 逐次 이것을 新艦으로 代艦할것

五、小型航空母艦若干隻을 建造할것

六、一九三七年三月三十一日까지에 海軍兵員을 六千名을 增加할것

七、海軍航空機를 一千七百五十臺로 增加할것

八、其他一般帝國國土防備를 爲하야 自由로 小艦隊를 新設할것

그리고 陸軍兵力充實에 關해서는

一、步兵大隊四個를 增加할것

二、野砲兵을 近代化할것

三、海岸防備設備를 强化할것

等이다

一千七百五十臺 海軍航空機新造
主力艦航空母艦巡洋艦도增造
海軍兵員도六千增加

新軍備計畫과 그理由及事情

【倫敦三日發電通】英國政府는旣報와가티 三日主力艦二隻建造、海軍航空機大增加等의 內容을 包含한 軍備充實計畫의 具體的內容을 화이트페퍼의 形式으로發表하엿는데 다시 右軍備充實에 進出하는것이 必要하게된 理由와 事情을 如左히 補足的說明을 하엿다

英國政府가 國際關係를 改善하고 軍備縮少에關한 國際協約의成立에 向하야 努力을繼續할것은 勿論이나 現在獨逸、日本、蘇聯、伊太利、佛國、白耳義、米國의 諸國은 서로 競爭하야 軍備擴充에 努力中이오 特히 獨逸은 그軍備計畫의 細目에 亘해서는 極度의 秘密을 守하야 이것을 窺知할수 업고 또 獨逸의 近代的空軍勢力의 擴充은 疑心할 餘地업는 事實이므로 英國政府는 拱手傍觀하고 列國의 軍備擴充의 傾向을 알두고 自國의 國防充實을 輕忽히 할수업는 터이다 이것을 米國으로보면 그國防費는 昨一九三四年度에는 一億六百萬磅이든것이 一九三五、六年에는 一億八千萬磅에 達하엿다 一方 日本에서는 四千五百萬磅의 赤字가 잇는狀態임에 不拘하고軍事費가 全豫算額의 四割六分을 占하고잇는 現狀이므로 列國의 軍備充實에 對한 熱意를 窺知하기에足하다

그리고 右에依하면 昨秋英國艦隊의 地中海集結은 伊太利駐屯軍의 補給路인 리비아의 主要航路이오 지브랄타르、말타、아덴、埃及等主要地의 空軍兵力增加도 이에 因함이라는것을 特히 言及한것은 右事實에 關한 最初의公式言明으로 注目할만하다

蘇聯、金品給與코 士兵에反滿慫慂
逮捕된士兵魁首事實自白
各魁首에二八〇留式

【新京三日發同盟】去二月十六日錦洞縣小北溝에서 逮捕된士兵魁首福山을 取調한結果 同人의 自白에 依하면 過般錦洞縣附近에 越境不時着한 蘇聯機는 首都로 가지고 士兵과 連絡할 目的으로 故意로 越境한外에 늘 蘇聯側은 國境附近에 蟠居한 各士兵魁首에게 多額의 金品을 支給하야 滿洲國擾亂을 强行케하고잇는것이 明瞭하게되엿다 即 福山의 自白에 依하면 該越境機는 蘇聯官局으로부터 反滿工作의 密命을 吳司令에게 手交하려고 錦洞縣南方二十五中里의 地點에서 吳司令과 會見한後 代表를 蘇聯에 派하야 「吾人은 革命에 同意한다 人民으로부터 掠奪함을 願치안는다」라는 旨를 傳하고 蘇聯으로부터 金品의 支給을바더 各魁首에게 二八〇留式 分配한것이다 그리고 逮捕된 福山도 多額의 蘇聯紙幣를 所持하고잇섯다

米佛兩國專門委員 實的協定妥協成立

【倫敦三日發電通】海軍會議米佛兩國專門委員은 三日午前十一時부터 正午에 亘하야 最後的折衝을 行한結果 드듸어 佛國側의 讓步에 依하야 實的軍縮協定의 最大難關이든 主力艦型及 總噸數問題에 關하야 妥協이 成立되어 兩國委員은 午後에 다시 會合하야 右妥協案正式起草에 着手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英、米、佛三國實的協定은 이제 事實上 成立되게되엇다 그리고 米佛妥協의 主要點은 如左하리라고 보인다

一、主力艦의 總噸數를 三萬五千噸、總隻數를 十四隻에 制限하는데 同意함

一、一九四〇年末까지는 主力艦建造數에 制限을 不附함 但 一九四〇年까지의 사이에 다시 協議를 開하야 主力艦型及 總噸數縮少의 可能性에 關하야 檢討를 行할터이다

蘇聯極東軍 滿蘇國境에集結

【新京三日發電通】三日某所로부터 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極東軍에 屬한 狙擊步兵第十二師團의 全兵力은「오론안나야」로부터「카즈이몰스카」方面에 移動을 開始하야 二十日에 至하야 移駐를 完了하고 騎兵第六師團은 二十日「다부르야」로부터 行動을 開始하야「격산도로스」「치-사보-트」에 移動하야 二十五日에는 集結을 完了하엿다 前記二地는 모다 滿蘇國境에 가까운 要地로 蘇聯이 如何한 意圖下에 如斯한 大軍移動을 行하엿는지 不明하나 北部滿境方面의 蘇聯의 威脅은 益益增大하야 當地官憲은 極度로 戒嚴하고잇다

警視廳及警保局 高等官辭表提出
治安一段落을기다려

【東京電話電通】警視總監及 警保局長은 目下 熱心으로 治安維持에 努力中인데 一段落되는대로 兩當局高等官은 辭表를 提出하야 今回事件에 對하야 責任을 負하기로되엇다

共軍二萬黃河渡涉

【天津三日發同盟】閻錫山氏는 二日 太原綏靖公署에서 討共軍會議를 開催한結果 總攻擊命令을 各軍에 通達하엿다 近近 各處에서 交戰될터인데 共產軍은 더욱 增加하야 毛澤東、徐海東、彭德懷等 紅軍이 黃河를 渡河한 모양인데 總數 二萬을 超過하게되엿다 그리고 毛澤東은 目下 中陽縣 山交鎭에 잇는데 同地에 共產支部를 開設하엿다

香月部隊任地向發

【〇〇電話同盟】滿洲駐屯의任務에 就할 香月部隊本部 松本少佐以下若干名은 四日午後六時五十分〇〇驛發 列車로 任地에 向할터이다

內府는 結局近衛公?

【東京電話同盟】近衛貴族院議長은 四日午前十時五分 參內하야 同三十五分부터 西園寺公과 會見하엿다 右會見에서는 近衛公으로부터 時局에 關하야 諸般情報를 報告하엿다 또 同公은 內大臣後任에 關하야 此際에 近衛公의 出馬를 보는것이 가장 妥當하다는 뜻을 깁게가지고 그 意向을 打診하엿던바 近衛公은 이것을 固辭하엿스나 아직 幾分의 餘裕를 남기고 辭去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今後他에 適任者를 發見할수업는 境遇에는 結局 近衛公의 出馬를 보게될것 이아닌가 觀測된다

八面錄

◇大京城도 조치만은 負債六百萬圓은 반갑지아니한일.

◇新府民全部가 六十萬이라해도 每人압헤 拾圓式을아갈計算.

◇이것은 府擴張의 첫선물이어니와, 그다음엔 稅金이올나갈것은 明若觀火.

◇빗치고 稅金는다고 子弟의 敎育機關은 漸漸不足의 度를加하고, 빗조흔 하눌타리라할까.

◇宇垣總督의 總理候補說、小磯司令官의 陸相候補說.

◇前例와順序로는 그럴듯도한 말슴이오.

東阿、따음問題로 伊首相重大演說

【羅馬三日發同盟】무솔리니首相은 四日午前十時 웨니아宮에 閣議를 召集하야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東阿戰況、米國中立法案成立、伊、埃、匈會議、海軍會議、聯盟制裁對策의 諸點에 關하야 重大演說을 行하엿다 演說內容은 如左하다

東阿의 伊太利軍은 北部에리트리아戰線에서 에디오피아軍의反抗을 擊破하야 壓倒的勝利를 博한것을 이에報告한다 또 米國議會는 中立法을 制定하야 明年五月一日까지 中立政策을 固執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우리는 米國議會의態度에 滿足할뿐아니라 世界平和를 爲해서도 貢獻하는바 크다는것을 思惟한다 따음問題가 伊太利의 參加업시는 解決이 困難할것은 從來 幾多의 事實이 證明하는바이다。伊太利政府는 來十八、十九及二十日의 三日間에 亘하야 伊埃匈三國會談을 遂하야 따음問題를 檢討하기로 決定하엿다 伊太利政府는 石油制裁가 實施되는限 斷乎 倫敦海軍新協定調印을 拒否할 覺悟이다 最後에 富裕國의 傲慢에 對하야 伊太利는 끗까지 經濟的自足의 途를 講究中인데 近近完成될터이다

伊에和協試案內容

【쥬네브三日發同盟】十三人委員會는 三日午後三時五十分부터 西班牙代表마다리아가氏司會下에 開會되엇다 劈頭에 플랑당佛外相이 示唆한 英佛和協試案을 審議하야 票決에 附한結果 滿場一致로써 이를 可決하얏다 和協試案要旨는 如左하다

一、十三人委員會는 伊에兩國政府에 對하야 即時 戰鬪行爲中止를 勸告할것

一、伊에兩國政府는 直接講和를 開始하라

一、右要請에 對하야 兩國政府는 가장 速히 諾否를 回答하라

右和協案은 即時 兩國政府에 電報로 通牒될터이다 따라서 十三人委員會는 이回答을 기다리기爲하야 十日까지 休會키로 決定하얏다

佛國政府結局 三萬五千噸同意
三國協約調印을約束

【倫敦三日發同盟】倫敦駐箚佛國大使 코ー빈氏는 三日午前十一時三十分 米國代表데비스全權과 會見하고 前後四十五分에 亘하야 協議한 結果 드듸어 코ー빈大使는

一、佛國은 米國의 主張인 主力艦噸數 三萬五千噸에 同意한다

一、佛國은 英米佛三國協定案에 調印을 約한다

는 旨를 言明하엿다 이리하야 海軍會議는 急轉直下的 解決을 어더 今週中에 實的制限委員會를 再開하고 新海軍協定案에 對한 最後의 檢討를 加한後 드듸어 來週、日伊兩國을 除한 英米佛三國間에 調印式을 行하야 三個月에 亘한 海軍會議는 이에 終幕을 告할것으로 보인다 英佛妥協의 要點은 如左하다

一、協定의 有效期間은 一九四〇年까지로함

一、一九四〇年 滿期後는 다시 外交機關을 通하야 主力艦에 關한 交涉을 再開하고 噸數引下에 努力할것

一、保留條項으로 非調印國 即 日伊兩國이 建艦을 實行하는 境遇에는 右協定調印國도 이에 對抗하야 建艦할수잇다는 旨의 規定을 附하엿다

輕便洋服收納器

一個式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長三尺八寸

輕便洋服收納器 (服掛三個付)
一個代金一圓九十錢 (一個小包送料九十三錢 二個小包送料一圓〇五錢)
本品은四方에카덴을처서 며지고치기가마음대로되며 洋服三件以上걸수잇고 와이샤쓰、넥타이等을걸수가잇슴니다 取扱하기便하고 表조끼만 今大流行의理想品 몬지안끼고늘깨끗한옷을입을수가잇슴니다
折疊寸法 長一尺 巾一尺三寸 深三寸強

桂掛洋服收納器 (服掛一個付)
一個代金 一圓八十錢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九十九錢 四個一圓〇錢
本品은洋服一着分과넥타이와이샤쓰等一切를收納할수가잇는優秀한것입니다
個人寸法 長三尺八寸 長一尺六寸 中七寸

伊藤利商店
名古屋市中區老松町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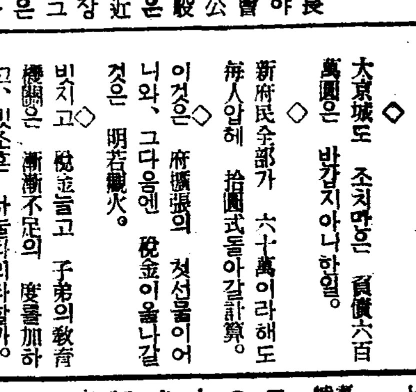
恩給
長期據置에有利 他에比較하야 事業最有 特色과照會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筆生
遠近男女 自宅에서 ... 詳細通知함
大阪住吉區天王寺町 隆文館

急告
猶者의 黑角圓形圖印을 昭和十一年二月二十七日 龍岡郡에서 紛失하엿사오니 勿見하소서
三月三日 平壤府倉田里 李斗杓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萬國不思議秘法大寶典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一種五圓十圓で敎へた秘法の公開!!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現代出版社

日の本式製族機
刻族의改善은 上下의急務
一日의能率百枚 一枚工費一錢二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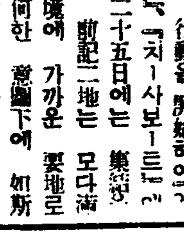


大邱府大和町 濱田農蠶機店
電話七四六番 振替釜山三八〇六番

副業本業
自宅で儲かる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 된다
マルハマ紙工業所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拾參番地 電話西六二四〇番

大東商業學校生徒募集 (京城府桂洞)
第一學年 募集人員 約百名으로變更
願書提出期限 三月十八日午後三時迄
試驗期日 三月十九日、二十日、二十一日

信聖學校生徒募集 (平北宣川邑)
第一學年 約五十名
出願 三月廿一日까지
試驗 三月廿四、五日

朝鮮唯一 認可電醫 養成

三週年特典生募集
物理醫療士責任敎授
最新物療全科敎授 院長 東京電醫學校創始者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永樂町岩永醫院側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라디오는 ナショナル

照明에비친 熹微한 "秘密結社"

出廷被告

朴平山

吉洪朱

沈相絃

羅東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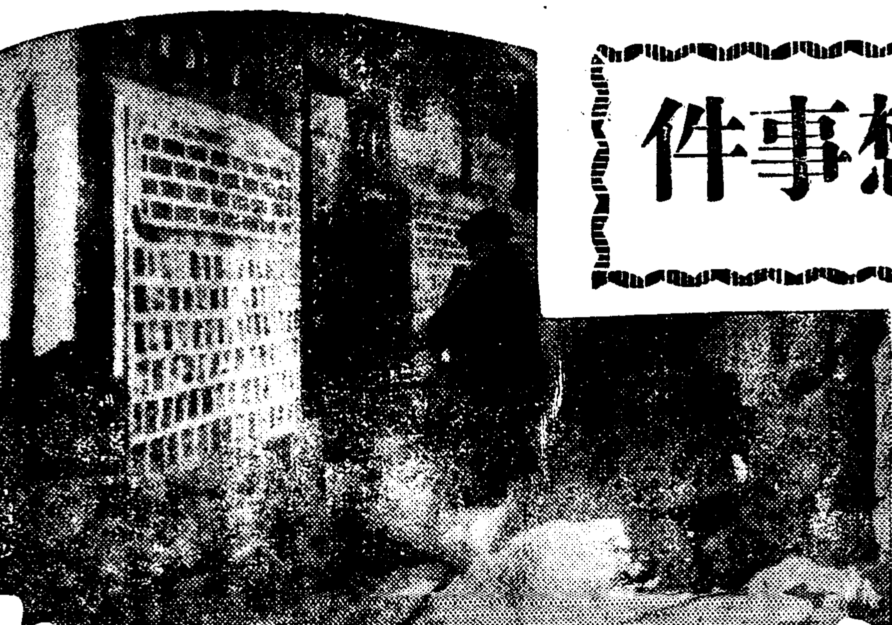
等十四名

박찬일 송회식(金燦洙, 朴燦一 宋和植)삼변호사의 열석하에 개정되야 제검사의준언한 론고도 다음과가튼 구형이잇슨후 열석하엿든 박찬일, 송회식 량변호사의 열렬한장시간의 변론이잇섯고 시간관계로 오는십사일에 속개하기로한후 폐정하엿다한다

金正洙 徐勳煥 李基同 各懲役三年
朴興福 梁在容 姜永秀 金盛根 各懲役二年六個月

證據申請을受理한最初의思想事件

衡平社事件公判●光州地方法院에서今日續開



關係方面注視裏에 四日午後에遂開廷

被告들의顏面에는疲勞의빗

遠來의親戚들로傍聽席滿員

그간 광주지방법원에서 회나 계속하야 열린형평사(衡平社)사건 공판은 사일에 제삼회공판이 열리엿다 이사건은 조선사상사건공판중 처음으로 피고들의 증거신청을 수리한사건으로 지난일일삼십일일 이사건을 담당한 안전(安田)판사와홍(洪)판사가 서긔한명을 데리고 경성까지 출장하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전형평사 중앙집행위원 김종택(金鍾澤) 박경환(朴敬煥) 황길수(黃吉秀) 서운성(徐雲成)씨등 네명을 심문하고 전형평사중앙본부사무소이엿든 운니동(雲泥洞)이십삼번지의 건물내부를 세밀히검증하여가고 또 취조한경관까지 증인으로 환문하게되엿니만큼 이공판의귀결은 자못일반의 이목을 끄는것이다 (사진은 형평사전회관)

證人으로法廷에선 木浦署長等警官八名

即時證人審問을開始

【光州에서本社特派員 李鍾模發電】사상사건에 잇서 일즉히례가업는 피고들의 증거신청을 전부수리하야 세간의 주목을 끌고잇는 형평사적색비밀결사 사건관계자 리동안(李同安)등 십사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의 제삼회 공판은 사일오후 한시삼십오분 광주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 이등(伊藤)검사간여 리재원(李在元)의 서광설(徐光卨) 변호사등 렬석하에 열리엿다 피고들은모다 수년간의 감옥생활에 피곤한안색이나 비교적 건강하게보인다 이방청석은 멀리마산, 천안, 온양등으로 부터온 피고들의 친척으로 갈득차 잇다 또방청석에는 증인으로 호출되여온전광주(光州)경찰서고등계주임으로 지금은 목포(木浦)경찰서에 근무중인심석(心石)경부보와 및동서전고등계형사로 위장(尉長)은 지난일일경성에 출장하야 전형평회관(前衡平會館)을검증할때 입회한 증인과 경관오명도 보엿다 피고(被告)중신점석(申點石)(三〇)은병으로분리심리를 하기로되엿다 재판장(裁判長)은 증인을심문한 사실을피고들에게 알리고경관에대한 증인심문을 시작하엿다

共産同盟事件

三年과二年半役求刑

【木浦】루보=목포공산주의자동맹(木浦共産主義者同盟)사건의제륙회공판은 예정과가티 지난삼월사일오후두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제일호법정에서굴부(堀部)재판장의 주심으로류(柳)관구(關口)량배석 판사와제(堤)검사의립회 김성호

大邱三中井에 盜難事件

【大邱】대구부내원정(元町)삼정중(三井中)금고에서 지난이십구일에 현금 일천삼백칠십원을 도난당한 사건이잇섯는데 대구서에서는 그뒤로 각방으로 범인을 찻는중에 범행은 내부에서한 혐의가 농후하야 사일은 그상점모주임의 점원칠팔명을인치하고 방금엄중히 취조하는중이라한다

거즛外交員逮捕

사일새벽에 시내 태평통(太平通)시흥려관(始興旅館)에서 리용환(李容煥)(四)이라는 사기범인을 서대문서원이 체포하엿는데

佛敎敎務院

心田開發에合作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는 삼일부터 그원에서 각본사주지회의(各本寺住持會議)를 열고사일도 계속중인데 다시륙일부터 삼일까지는 한의원회를 열고종단부의 심전개발운동에따라 장차활동방침과 조선불교의 여러가지문제에대하야 협의할터인데 이것을 긔회로 우원총독은 사일오후세시부터 불교관계자를 부민관에 초대하고 조선 불교문제에대하야 여러가지로 간담을하엿다한다.

鍾路署에서檢擧한 婦女誘拐團一小隊

그中에서二十六名一團은今日에

나머지十名은五日送局

지난달 초순부터 시내종로서(鍾路署)사법계에게 검거취조중이던 시내 장사동(長沙洞)오십륙번지 성신사(誠信社)라는 인사소개업자 신성조(申聖祚)리태환(李泰煥)등의 전조선에 뻐친부녀자대유괴사건은 그동안 그서 영정(永井)사법주임이 직접 취조를 진행하며 계원이 각지로 출장까지가서 공범자를 검거하던중 요지음 검거와 취조가 다되야 지어 사일오전에 김봉순(金鳳順)(二四)…(女子) 리종옥(李鍾玉)유순오(柳順五)(二一)등 십명은 신체구속 으로 은봉구속으로 전부 이십륙명을 일천 삼백여 장의 두터운 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엇다 이들과 동근이리의사건으로 역시 그서에서취조중인 박재숙(朴載淑)(三一)등십륙명에대한 유괴사건도 내일쯤송국되리라고하는데 그들은전괴로하야 전조선각지의 인사소개소를 중심으로 마수를버처 무지하고 순박한농촌부녀들을 교묘한 수단으로 꾀여가지고 인장과 문서와 민적등본까지를 위조하야가지고 만흔돈을 밧고팔아먹던것으로 그들 악착한 인육상(人肉商)의 일당가운데는전과 수범의 악한들이 석겨잇고 기생녀자들도준동하엿스며 의사들까지 두명이나 관계되여잇다 피해자는 경주(慶州)사는 리두순(李斗順)(二〇)등이십여명이 나되다

그는 작년부터 일본동산화재보험회사(日本動産火災保險會社)의 교원의 명목으로 각지에서 보험사고를 해먹은지로 그동안본정서(本町署)에서 수배중이던 범인으로 그피해액이 천여원에달한다고한다

竊盜패逮捕 시경에 시외신당리(新堂里)일백륙십이번지의사호 전과이범김야고비(金也高卑)(三六)와 왕십리(往十里)칠백사십오번지 서창환(石昌煥)(三二)은 절도혐의로 본정서에 이첩되엿는데 그들은 작년십이월부터 각처를도라다니면서 절도하엿다는데 피해액은 이십백원이나 되리라하며 방금조사중이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南鮮附近에잇고 高氣壓은 北中國과 滿洲와 朝鮮北境中部에 七八〇미리를보이고 本邦方面은氣壓이 낮다 滿洲와 朝鮮은개이고 南朝鮮은흐리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개이고 明日도개이다 京城全道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一度四〇
今朝最低 同 一二度二
今朝最低 同 九度四
今日正午 同 三度三

興南赤勞金必壽等

最高四年·最下一年半求刑

【咸興】녀자단신으로 입로(入露)하여 그곳에서 공산대학을마친후 적로(赤勞)재건의 사명을띄고 귀국하야 흥남(興南)을중심으로 원산(元山)문천(文川)함흥(咸興)장진(長津)등 과명한로동시장으로 돌아단거면서 적로(赤勞)조직에 활약하다가 잡힌 경남김해군 김해읍(金海郡金海邑)출생 김건의 공판은 오후한시부터 함흥법원에서 진(陳)판사주심평석(平石)검사의 간여로 개정되여 전반의심리를필한다음 검사로부터 다음과가티 최고사년 최하일년반의구형이 잇섯는데언도는오는 오일로결정되엿다

金必萬 四年 金聖翼 二年 尹鴻淳 一年半

長津逆水問題

賠償支拂로段落

【五老】장진강수전제일호 발전소여류수 침해문제는 저반회사 당국에서 피해자에게 약간의 보상은하여 문제는 일단락을 지어던바 그때에 회사의 보상액이 적다는 불평을품고 회사에 보상금을 밧지안코 면사무소야 지정까지하여 재차 주목을끄을게 되엿든바 지난 삼십일동회사사원이 직접출장하여와서 피해상황을 다시정세하는일방 각히아래와가티 보상을 지불하엿다는데 이미 피해를바든것은이상과가티 적드만큼 보상을하엿스나 문제는 금후에 더욱진해를바들 오로시(五老市)에대하여 아무연구적대책을 강구치안코잇는 회사의 무성의한태도이라고한다

五老里	申九植	三七、六〇	全額
同	金大甫	六〇、〇〇	同
同	韓完淑	五〇、〇〇	追加
同	朴光植	五〇、〇〇	同
同	鄭利燮	五〇、〇〇	同
同	姜達弓	四〇、〇〇	同
同	崔鳳錫	四〇、〇〇	同
同	盧一信	四〇、〇〇	同

現代의獵奇!

芳山橋岩窟속에 地下의竊盜學校

教授는前科三犯刑務所卒業生

竊盜學第一課는 "구두盜賊"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절도학교를 조직하야 리론과실천을통하야 일식한 사나히가잇는데 그는본적을 광주군오포면고산리(廣州郡五浦面高山里)에두고 주소가일정치못한 한성택(韓性澤)(二三)으로서 전과삼범이란 경력을가지고 이미 개성(開城)소년형무소를 졸업한그는 작년출옥이래 거리의 걸식 부랑자들을모여 시내방산정(芳山町) 방산교(芳山橋)미테 『바라크』암굴(岩窟)을 만들어 교장(敎場)으로 삼고 범죄학을 교수하여왓다는데 절도학(竊盜學)의 요령을듯건데 제일계단은 현관(玄關)압 구두와점두(店頭)에장식하여노흔 물건을 절도할것 제이계단은 빈집에 드러가절도할것 제삼계단은 밤중에침입하야 절도할것이란 조직적교수를 하여가면서 생도격인본적(本籍)리천군부발면(利川郡夫鉢面) 주소부정 주순창(朱舜昌)(一五)본적불상(本籍不詳) 외리삼남(李三男)(二一)리수경(李壽慶)(一三)박동용(朴童用)(一二)서병호(徐炳鎬)(二二)등을시내각처에 포진(佈陣)식혀가지고 각장국장 전차등 사람모이난곳을 따려다니며 절도행은(소매치기)를하고 다니엿다는데 피해는방금 본정서에서 조사중임으로 자세히는 모르겟스나 다액에 오를모양갓흐며 체포된동기는 작일신정(新町)부근에서 출동주비차로 모의를 거듭하다가 필경동사헌정(東四軒町)파출소원에게 발각되엿다한다

洞名解消記

"出世를하면 都市도薄情해저나봐"

傳統을無視하는 京城府의大蠻勇

鄕土色濃厚한洞名을차버리고

"町"으로치곤자못滿足

오는사월 대경성으로 구역확장을 보게되면서 경성시내의 동리일홈을 종래 동(洞)·리(里)로 불으든것을 일조에 정(町)으로 고치려고 경성부에서는 방금경긔도당국에 동명개칭에대한 인가신청을 하고잇는터이다 경성부당국자의말을들으면 『새경성이되면서 동리 일홈도 종래것을 버리고 『정』으로 일신하는것이 얼마나 신선하냐고 동치상 아주 중대한곳에나 착목한듯이 말한다 그러나 구시가주민으로서는 신선하기는커냥 넘어도 엄청난작난에 지나지안는 동명개칭에 불쾌를 늣길뿐이다 『동』을『정』으로 고친다고 서울의 거리가 당장 새로워지리라고 밋는것은 넘어나 유치한생각이다 마치 갓(笠)쓰고두루막이입은 우에 『하오리』나 입히는셈이 아닌가

경성부에서는 공문 한장으로 동명을 고치면 백성들은 다 리해관계 업는 일홈으로 의례히 그대로 밟으지 안흘수 업슬것이라고 생각하는모양이나 실제 오랜세월을 두고 불러 내려오든것을 아무렴필요도 업시 명칭을 고치어 그사용을 억지로 맥긴다는데는 밋는바 감정상 ... 치안흔것이 잇다 대저 동(洞)이란 일홈은언제부터 불러워것는가를 문헌상으로 알어보면 경성에서는 리태조가 한양성(漢陽城)에도읍한 그때부터시작하야 오늘까지 오백사십여년 동안을 불러온것이다 이것을 일조에 ... 동이 일일이잇서 동명의연원 『太宗在松都敎誠諸』『王后閔氏』(某年某時)誕于松京敬洞』

임서에 『혼마찌』(本町)『야마도마찌』(大和町)이니 하는식으로 전부 정(町)으로 고치어 력사깁흔 향토적정조(鄕土的情調)를 업시한다는 것은 크게 불가한일이다 그것을 고치지 안허서는 부의 행정상 큰지장이나 생긴다면 모르거니와 그런것도업거던 개칭할필요는 전혀업는것이다 그러고 다시문헌을소급한다면 동명은 리조조선이전 고려(高麗)때에도 잇섯다 문헌에보면 은 실로먼곳에서부터 시작되엿슴을 알것이다

◇

다시『동』(洞)자의유래를캐보면 『골』(谷) 또는『골』(谷)에통하는 자의(字義)를가진것으로보아 더욱오랜상고사상의연원을가젓다 즉조선인은 본래산상의민족으로 산곡의 굴이나 산골작이에서살다가 점차로 평지로나려오게되며 내종에는 시가지를 『동리』니『고을』으게된것이다 이것이 그후에 고려와 리조때에내려와 동리일홈으로된모양인데 이제 일조에 『정』(町)으로 고친다는것은 무용한노력에끄칠것이다

東星商業

四日에卒業式

卒業生은全部就職

부내동성상업학교(東星商業學校)에서는 사일오전열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제십일회 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이번졸업생은 모다오십삼명으로 은행(銀行)에아홉명 회사에여덜명 금융조합에여섯명 관청에두명 상점에세명 한이십륙명이 취직하고 기타는 상급학교에가거나 가사에 종사키로되엿다고한다

"五圓쯤은所用업다"

丹陽郡梅浦里에豪俠强盜

호협스러운 강도미수단도 잇다 이일오전두시쯤 충북단양군 매포면 매포리(丹陽郡梅浦面梅浦里)김영동(金榮童)의 잡화상점에 거문두루매기를입고 복면한 강도한명이 들어와서 약다섯치가량되는 식도를내밀며 주인에게 돈을내라고 협박함으로 주인은 물건판돈 오원각수를 내어주며 가지고가라하매 우리일행은 모다 다섯명인데 돈오원가지고는 아모것도 안된다고하며 이런사실을 경찰서에 말하면 집아직구를 모다 죽여버리겟다는 공포스러운 말을 남기고 어데로 자최를감춘 사건이 발생하엿다 이보고를바든 단양경찰서에서는 곳인근각경찰서와 련락하야 이호협한강도미수단의 행방을 찻는중이라한다

싸홈끄테殺妻

경북경산군하양면금락동(慶山郡河陽面琴樂洞)이백이십사번지 농사꾼 최모(崔某)(三一)는 삼일새벽세시쯤되여 자기의처 리야무(李也無)(二七)와 싸홈끄테 날카로운칼로 찔러죽인후 자최를 감추어버렷다 원인은 질투때문으로 지금범인을찻는중이라한다

새벽의棄兒옷고름에 "感氣藥을먹여주세요"

오늘아침橋北洞에눈물의棄兒

생활난에 빠저 허덕이는 가난한집안사람의 애닯흔 개구녕바지─지난사흔날밤 아홉시쯤되여 살인정을 여이는듯한 찬바람이 불어침제 시내교북동(橋北洞)구십륙번지 김성화(金聖華)의선술집문압해 나흔지열달가량되여보이는 사내아이를 개구녕바지로 내여버린일이잇서 그주인은 이사실을 곳소관서대문서(西大門署)에 알리여왓다한다 그갓난애의 옷자림으로보아서는 가난한사람이 길울수업서 그대로 내여버린것이리라하겟는데 그애의 옷고름에 『요지 이애가 감기가 드럿서 끌끌하는터이니 자비스러운당신은 약을좀먹여서 튼튼히 잘 길러주시오!』한 글시가 적혀잇는것으로 보아 그부모가 생활에쪼겨 비록 내여바리긴햇슬망정 얼마나 자식을 애끼는 마음과 떼칠수업는 애정이 빼처섯든지 알수잇다한다

運動競技

南朝鮮卓球經過

【釜山】釜山體協主催의 第十三回 南朝鮮卓球大會는 지난一日午前九時半부터 釜山高女講堂에서 열리엿는데 參加選手 五十名中에서 學生部에는 秋永浩(釜山二商)君이 優勝하엿다

【準決勝】
曺鐘昊(東萊)3…0李正寶(東萊)
秋永浩(釜商)3…0孫東錄(東萊)

【決勝戰】
○秋永浩3…1曺鐘昊×

金容喆君卓球優勝

仁川體育協主催의 第一回全鮮卓球大會는 지난二日午前十時부터 選手六十五名이 參加한가운데 仁川小學校講堂에서 열리엇는데 다음과가튼『스코어』로 總督府金容喆君이 優勝하엿다

【準決勝】
○金容喆(總府)3…0楠木(遞)×
○鈴木(三井)3…2近藤(殖)×

【決勝戰】
○金容喆(總府)3…0鈴木(三井)×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府外阿峴 本舖 ...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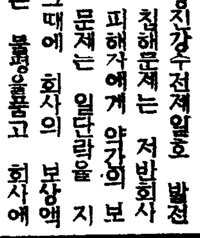
補精強壯劑 海狗腎 眞品 樺太廳官營採取 請求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二二一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雲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

개량담배대 便利하고價格이廉하야 京鄕에서流行되는 이 개량담배대 製造發賣元 京城府鍾路三丁目六九 德昌工業社 型錄及定價表送呈합니다

압흔寿에는 오세로 疾藥 全國各藥店에잇소 ¥0.30 ¥0.50 天野テツ商會 大阪西區日吉橋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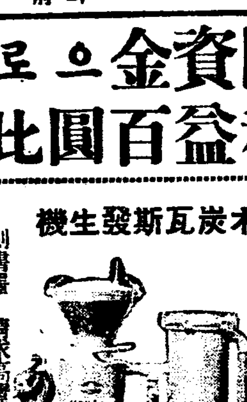
부인병 자궁병에 조혈정

귀여운 자녀를 나시고 자궁병이 나신 증명이잇서 감사장이잇는 조혈정이라는세계적최신발명약을 세상에공포하오니 부인병으로 자녀를 못나시고 소원이 만흔분은 쓰시요 반듯이 병을 나스시고 자녀를 볼것입니다 자궁병 부인병 대하증 적대하 백대하 월경불순 월경곤란 자궁냉병 ... 조혈정은 물약으로 먹기 편하고 ... (說明書進呈) 京城鍾路(宗廟電車停留場南側)私書函光化門局三七番 調血精製造元 日光製藥社 振替京城二二六四二番 (支店、代理店、特約店募集規定書進呈)

絹織物新春大賣出 ●見本及時勢表進呈● 明紬、生紬、春紗、改良紬、眞熟素、眞庫紗、交七色、兩色緞、臙皮紬、水木其他 平北寧邊城內 製造卸賣 寧邊絹織所 金基厦 振替京城二四、一〇四番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果樹苗木養成販賣 定價表進呈함 開城南山町 興林農園本店 振京一五〇三七

工業은 面◆洗濯石鹼製法◆增酒法◆鍍金法◆化粧品製法에關한規定書無料送呈함 人生의幸福이오니有意諸氏는二錢切手添送하시압 京城府長沙洞一一九 泰昌工業所

三百圓資金으로…… 月利百圓比率確實
木炭瓦斯發生機

發動機使用諸彥의福音
(一)木炭瓦斯發生機로木炭을使用하야 發動機를使用하면 石油로 發動機를 使用함보다 月利益六十圓乃至百圓이 確實히有함
(二)本機는 何式發動機에던지取付使用함을得함
(三)地方에特約店을募集하오니有意諸彥은 先好期하시고 하로速히照會하시압
則書要 請求高覽하시압 將來斯界의雄王
合資會社 三浦製作所
朝鮮總發賣元 三成機械商會 京釜線水原驛前

朝光 三月號

斷然 朝鮮雜誌王

내가가진貴重品과家寶

高裕燮、安在鴻、安浩相、金瑗根、權相老、李 一、高鳳京、金珖燮、梁柱東、李泰俊、金晋燮、李瑄根、梁柱三、朴花城、金秉河、李淑鍾 諸氏가 가지고잇는貴重品과그가앗기는家寶는어떤것인가

女優 文藝峰訪問記 一記者

畫報 京城街頭의現代色 / 淺春映畫帖

漫畫漫文 沈淸傳……金熊超 / 全大砲……崔永秀

今春問題映畫 미모자館

『일허진民俗』沙鉢通文 申鼎言

風雲兒傳 三日天下李适 史外史人

手術簿에나타난人間의悲劇

放浪二十年受難記 李克魯

學校選擇의原理

學校만入學하면그만이아니다 어떠한學校에入學할가가 큰問題다 보라이一文이將來를指示한다……金輿濟

學校卒業生과社會 李萬珪

重要産業統制와朝鮮의實施問題 朴用來

株式과投資 李健爀

岡田內閣의前途 咸尙勳

極東政局의爆彈庫外蒙과北中問題 李元坤

日本의對中三原則과極東의몬로主義 徐椿

서울이야기 / 女性界消息 / 映畫界消息

心頭雜草 詩心不滅 金石松

京城街頭의闖入者치호놉은君

李洙倬의最近生活 豪를꿈꾸는李君은지금어떠한經路를밟으라하나 李鍾模

女校敎員生活十五年 어떠한사람이學校敎員이되나女學校敎員은어떠한生活을해야하나 金允經

婦人讀物

- 春季兒童服……任貞爀
- 新春化粧法……鄭燦靜
- 美人되는條件……OKO
- 家計簿와主婦……宋今璇
- 小兒養育法……張文卿

史上美人傳 虞美人 楚覇王의愛姬 靑吾

校門을나서는女性에게 金活蘭·任永信·金美理士·宋今璇·任貞爀·徐恩淑

記者試驗考査後感……金炯元

文學時論 美의時代性과文學의健全性……金翰容

實話 동생에게愛人을뺏기고……吳유라 / 箱子안에러브레터—……金順蓮

因果律의再吟味……都相祿

H₂O(물)……李在崐

朝鮮姓氏淵源……車相瓚

男女專門大學卒業生名簿寫眞

春郊畫文帖 大家揮毫

小說特輯

- 中篇 賭博 李箕永
- 短篇 능금나무아래서 宋影
- 短篇 惡魔 朴泰遠
- 短篇 故鄕 安懷南
- 長篇 純情海峽 咸大勳

書 金殷鎬 金瑢俊 張錫豹 金熊超 崔禹錫 具本雄 安碩柱

文 李殷相 李泰俊 金起林 李源朝 白石 李箱 咸大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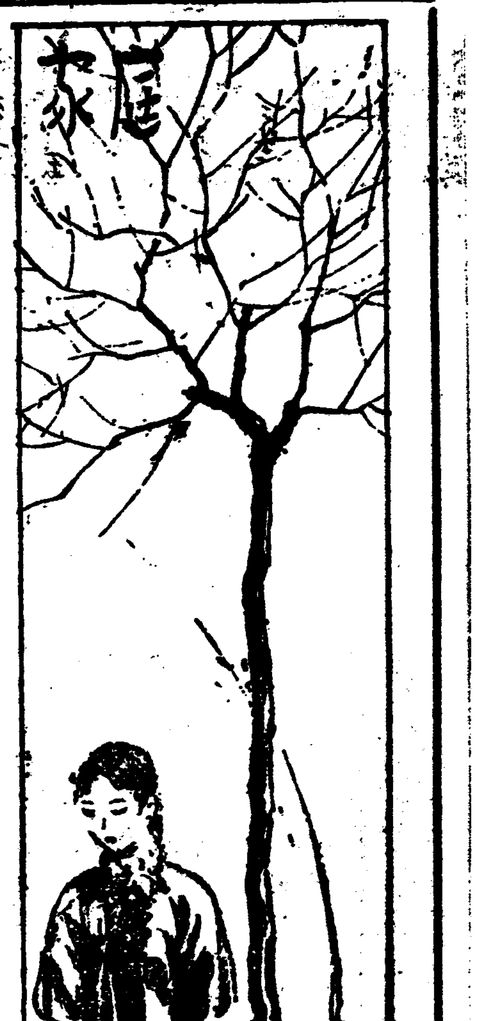
詩 春園·金尙鎔·朴月灘·朴龍喆·白石

隨筆 鄭仁燮·金文輯·李一·姜貞任

定價 三十錢 地方郵稅本社負擔 四百餘頁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家庭



병안나고 시간잘맞게 시계오래갓는법
태엽을되게감으면탈난다
잘못손질하면늘말ㅅ성

시계가 업슬때라고 못 살지안 햇건만 이제와서 시계가업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관념이 향상되엇다 우리의 생활이 진보된 보람이라고도 볼수가 업지를 안습니다. 그러나 벽에 거는 것이고 책상에 넛는 것이고 팔뚝에 두르는 것이고 주머니에 넛는것이고간에 시계란 아조 묘하고 복잡하게 된 긔계올시다. 그러한 긔계의 묘리도 아시지 못하고 함부로 다루시니까 웬만한 병이 잘 나는것이올시다. 갑이 적어야 아깝지를 안치요. 될수잇는대로 사용방법을 배화서 병나지안코 오래 가질도리를 차리십시요.

억던시계든지 늘움즉이고잇다는것은 다 아는일이지만 은 얼마나 움즉이고 잇는 것을 똑똑이 아는분은 아마 드물것입니다. 조그만주머니시계는 적어도 일초동안에 다섯번은 재깍재깍하니까 일분에 삼백번 한시간에 일만팔천번 하로에사십삼만이천번 일년에 일억오천여번을 재깍재깍하는셈입니다. 그러고 템푸는 좌우로 진동되는 둥근바퀴로서 아조 적은시계라도 일분동안에 약열짜를 왓다갓다하고 한시간에 약일마잘 천자를 왓다갓다하고 일년에약 천여리를 왓다갓다합니다. 그러케 움즉이는 긔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데로 또따또따 기름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흔히이 저버리시는분들이 만흔데그 것이 시계의 사정을 모르는족입니다. 아조적은 주머니시계는 반년에 한번씀 좀더큰 남자의 주머니시계는 일년에 한번씀.

×

시계를 끄내볼때마다 태엽을감아 주시는버릇도업지안하나 그러케해서는 시간이 작구틀리게 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감을때 꼭 감아주어야 조금도 틀리지안습니다. 그러고 태엽을 아조 꼿까지 꼭 감아버리는 버릇도 잇스나 그러다가는 밥회의 이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끄트로 두어번 더 감을 여지를 남겨노코 고만 두어야 아모탈이 업습니다. 그러니까 메번을 감아 다감기는지 그번수를 아는것이 조치 안습니까? 그런뒤 날마다 그번수에서 두번이나 세번씀 덜정하게 덜감아 버리면 되지 안습니까? 그러나 제일 낫븐것은 시침과 분침을 뒤로 잡아돌리는 그것입니다. 아모리 귀찬터라도 한번 다시 더 돌리어 마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작구 시계의 딱지나 문을 열어 제치는 것도 조치안습니다. 그러케 해서는 몬지가 더들어가지 안습니까? 또 뜨거운화로 난로등에가 까이 누키나 대는것도 조치 안습니다. 그러케 해서는 일것 너흔기름이 척다 날러가 버리고 또 긔계에 말썽부터 버리지 안습니까? 그런데도 시계가 제일 대그 하는것은 물입니다. 만일물속에 빠트렷다가 꺼내거든 곳 시계를 뜨더서 알콜이나 휘발유에 담거가지고 시계포로 갓다 줄것입니다. 그냥엣시간을 두엇다가는 녹이슬고 몬지가 엉키어 못쓰게됩니다. 나중에 고친대도 그시계는 감수(減壽)를 하게 됩니다.

미국녀학생의 사생활고백

뉴—요에잇는 버—너—드대학에서는 요전번 교우회잡지(校友會誌)주최로 삼십녀학생칠십인에대하야 사생활에 관한여러가지 질문을 햇드랍니다. 그랫드니 그대답들이 여간뻔뻔스럽지안트라고요. 대단한가운데흥미잇는것을 드려요령을 말슴하면 일곱명 녀학생중에—

▼사실구퍼—센트는 열사람이상의남자와 키쓰를햇다

▼이십구퍼—센트는 안해잇는남성과 놀러다녓다

▼오십일퍼—센트는 불명예스런구혼(求婚)을 바덧다

▼팔십퍼—센트는 담배를피운다

▼삼십륙퍼—센트는 술을먹는다

이와가치 척척대답은 하면서 독남자와가치 목욕한일은잇는가』하는질문에 대해서는 말광량인 그들도 입을열지못하고 얼굴이빨개지드랍니다 (뉴욕同盟特信)

童話 외다리병정 (一)
崔秉和

어느 조고마한 도련님방에 생일날축하로 상자에든 작난감을 선사받엇습니다.

『야, 병정이다 병정이다』하고 손벽을 치면서 깃버 하엿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식 하나식 끄내서 책상우에 주ㅡㄹ늘어 노앗습니다. 그것은 남빗과 붉은빗 복장을 입고 짤막한 총을 메인 조고마한 주석(錫)병정이엿습니다. 모다 합해서 스물다섯사람이엿습니다.

이병정들은 전에 작난감자가 주석수가락을 녹여서 만든것이므로 죽 다시말하면 가튼 살과피를 나눈형제이엿습니다. 그것이 모다 기착을하고 압을 똑바로 보고 서서잇섯습니다.

얼핏보면 스물다섯사람이 손톱만치도 틀리지안는 똑가튼병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한사람 다리가 하나밧게업는 병정이잇습니다. 이것은 만들때 제일나중에 만든것으로 주석이 모자라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병정은 외다리를 가진채로 다른병정과 가티 기착을하고 압을 똑바로 보고 서서잇섯습니다.

책상우에는 그외에 여러가지 작란감이 만히 벌려저잇섯습니다. 그중에서 사람의눈을 끄는 제일훌륭한것은 마분지로 맨든 그것은그것은 아름다운 서양집이엿습니다.

그방에는 창들은 네모번듯하게 뚤려저잇고 그창으로 드려다보면 방속이 잘보엿습니다. 그리고 대문깐압헤는 파란작은 나무들이 둘러싸인 동그런연못이 잇습니다. 그연못은 거울로 되여잇섯습니다. 그속에는 몃마리인지 초로마는 흰새가 물에 그림자를 빗치면서 헤여치고잇섯습니다.

그것은 퍽 깨끗하엿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보다도 더 아름다운것은 뚱뚱계우에 서잇는 녀자이엿습니다. 그것은 마분지로 만든것이엿스나 그 몸을 오려서 만든것이엿습니다. 입은옷은 비단옷을입고 목에서엇게에다 파란리봉을 걸치엇습니다. 그리봉은 가슴복판에서 그녀자의 머리만큼이나되는 금조희로만든 그란 장미꼿으로 꾸처잇섯습니다.

그녀자는 두팔을벌리고 한발을 번젹들고 그장주는 춤추는 곳이는것이엿습니다. 그처름한 발은 엄롤보다도 배우에 놉히 가잇스므로 얼핏보면 한발이 어되잇는지 알수업슬만치 되엿습니다.

외다리병정은 그녀자를보고 「아, 저사람도 한발밧게업고나 되다. 나는 어제부터 이세상에는 나가튼사람도 또 잇고나」 저사람과 사이조케지내자. 그러나 저편은 저러케 훌륭한 녀자다. 나는 이러한집에 살고잇서서 한서양집에살고잇는 녀자가 외다라고하여도 즐겨하지 아니할것이다 나는 오지안흘이 나는 스물다섯사람과한께 이러한 상자속에 잇는데」

외다리병정은 자기집이되여잇는 상자뒤에서서 발도동을 헤가지고 그녀자의 춤추고잇는것을 보고잇섯습니다. 그녀자는 한발로서서 너머지지도안코 고흡게서서 잇섯습니다.

그러는동안에 밤이되엿습니다. 다른사람의 병정은 모다 상자속으로 드러갓습니다. 그러나 외다리병정은 그자리에 드러누어서 잠이드러버렷습니다. 그러자 책상우에 작란감들은 한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엿습니다.

그중에는 짱충짱충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가기도하고 여러시 춤울추기도하고 도깨비놀음하기도하며 와와하며 야단법석을 하엿습니다.

주석병정들은 상자에서 나올라고 꿍꿍거리며 소리를질넛스나 그러나 상자뚜경이 무거워서 열리지안햇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고마한 종이비는팔이 뛰여가는게고리에게 농을붓치고 잇습니다.

석판우에서는 석필(石筆)이 때굴때굴 굴느고 잇습니다.

그소리에 새장속에잇는 카나리야도 눈을뜨고 노래를 불넛습니다. 그떠들석하는속에서 춤추는녀자와 외다리병정만은 잠자고 몰도움즉이지안코 잇섯습니다.

녀자는 두발을벌리고 한다리를 처들고 둥둥계우에 감갓흐 서잇섯습니다 외다리병정은 그녀자를 똑바로바라보면서 꽉꼬시 서잇섯습니다.

그때 방안의시계가 열두시를 첫습니다 그러자 담배상자뚜경이 덜컥열리는듯하더니 그속에서 식검언귀신작란감이 불숙얼골을내노앗습니다.

『이놈 이놈 외다리병정 너는 무엇을 그러케 보고잇느냐 네팔에이놈, 누가 너하고 사아조케 지내다든』 식검언귀신은 이러케말하면서 코웃음을 놋습니다.

외다리병정은 귀신이하는말은 드른척마척하고 태연스럽게 춤추는것을 보고잇섯습니다.

『흥, 네맘대로해라. 그러나 내일아츰이되거든 놀나지마러라』

식검언귀신은 그것을보고 두덥두덥하면서 성을냇습니다.

냄새의예술화
香水漫談
코가예민한근대녀성

『파리의밤』(巴里의夜)의 향기가 아무개대 안ㅅ방에 가득차잇습니다. 그것은 이댁주인마님이 그향수를 애용하는까닭입니다 어데를가든지 이댁마님이가시는곳마다 풀풀떠러집니다.

어느극장에 갓슬때 술썩연호로 지나치는 그아릿다운 아가씨는 『꼿의파리』(花의巴里)의향기를 남기고 지나갓습니다『니줄래 니줄수업는 그대』…… 이러한 감상이 그향기에서 이러납니다—

이가리 오늘의향수는 아씨나 아가씨 그이의개성에 푹드러마저 그가조와하는 향내는 그분의 육신(肉身)이 되다시피 되엇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흔향기를 피운다는 그것해이상으로 그분의교양, 취미, 품격, 그외의모든것이 그향내가운대 포함되어 그분의 모든것을 대표하게 되엇다 불수잇습니다

그럼으로 향수를애용하기전에 몬저 자기가제일조와하는 향수 한종류를선택하고 그한종류만으로 통일해서 개성이넘치는 예술적향기를 다른사람에게 끼치게하야 그향기만으로서 자기의 전인격을 다른사람에게 알릴수잇슬만큼 지금의세상의 향수애용의영역이 발달되엇습니다

그러면 엇던향수를 썻스면조흘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각기조와하시는 향내가 잇스시겟지만 향수에대한 얘기를잠간드리겟습니다

옛날에는 (옛날말고 요몃해전까지라도) 향수라고하면 『코ㅣ즈』 『헤리오트로오푸』하는 꼿향기만을가지고 향수라고 혓습니다 그러나 근대의와서는 향수가 그이상진화되어 꼿마다가지고잇는특한 그의향기 그것을조협하야 좀더추상적(抽象的)을찻게되고 인대상물(對象物)을찻게되고 그것이 발달되어 개념적이 되어버렷습니다. 례건대『꿈의꼿』『파리ㅣ의밤』이니하는 추상적명칭에 어울리는 향과를 창조하게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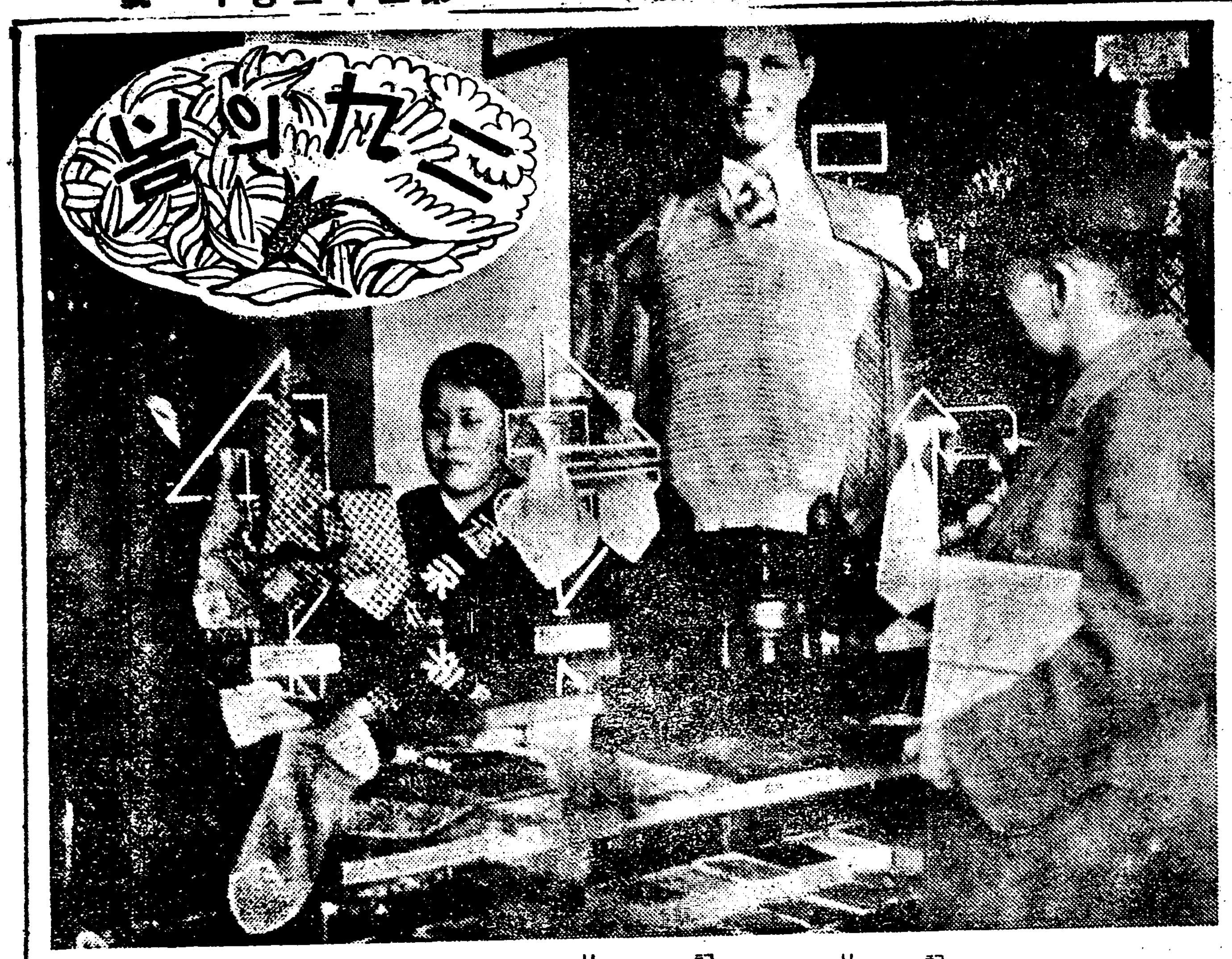
이러한종류를 손꼽는다면 『스캔달』『마이신』『코티』회사에서 맨는 『파리ㅣ』 부르조아회사에서맨는 『파리ㅣ의밤』『파리ㅣ의봄』『꿈의파리ㅣ』이러한것들입니다 이러한것들은 모다추상적분위기를 표현한종류의 대표적인 것이니 종래에내려오든 향수(국화』『해당화』『수선화』이런 따위의 한가지 한가지 꼿의향기가 향수로되것에대하야 현대의 향수는여러가지향내를 조합해서 추상적인 단순치안흔 향내를 표현하게되것입니다

이점을 음악상에 비한다면 단순한 기악이나 성악이나 관현악이되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향수도 이러트시 복잡하고 예술화해진것입니다

외국 특히이태리, 불란서에서는 『오렌지』가튼 급조유가만히 나고 또한 구하기손쉬어 향수의원료가 풍부하기때문에 그발달이 대단하고 금후 예술향수로서의 표현상분야로보아 전도가 양양합니다 동양에서는 향수의재료가 풍부치못한탓인지향수에대한 관심이그리크지못합니다 그러나 요건래 화장품이여러가지 쏘다지는 바람에 향수에대한 감각이 비교적 예민해지는듯십습니다만 여간한 멋쟁이(조선서말입니다)가 아니고서는 향수의 이름조차 아는분이 몃안되겟지요 그러나 향수가우리의 필수품이되어 우리네든한코로 수십여종의향내를 분별해 마틀수잇슬때가 결코머지안타고 볼수잇습니다

상금탄가정

산아제한의 도중가갓치 생각해지는독불란서』에서 한가지 이상스런일이잇다。이것은 『메쓰ㅆ시(市)』에 사는 『피에르·리쓰ㅆ』씨는 사진과가티 열세사람의 대가족이라고합니다。금번에 『아카데미·프란세ㅣ즈』에서 다산상(多產賞)이라고 해서 만『프랑』이나 주엇다 합니다



"남알기와달라요 백화점로ㅣ맨스"
경게선하나에 지척도천리
訓練部長과의 一問一答

記者 여기잇는 녀점원들을 나히롤봐서 한창고민만흔때가 아닌가하는생각을 갓게되는데요

朴 그러치도 안홀것갓해요 식당에잇는 애들은 너무어려서 아직 아모것도 모르는것갓고 매점의점원들은 벌서 그때를 넘엇다고봅니다

記者 그래도 열네 다섯부터 스물안짝들이라니까 한창 뒤숭숭하고 씁씁하고 마사가 귀찬은일이 만흘때겟지요?

朴 사람이 사러가노라면 엇지리로운때가 업겟습니까 마는 여기녀점원들은 철을따라서 고민하거나하는일은 흥업습니다 매점에나가서 도라다니노라면 행용 얼굴색이 변한사람들이 업는것은 아니로되 그런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리유를 캐여무르면 주위환경의따한사정때문이라고합니다

記者 녀점원이라고 자연적법칙을 버서 날수가 잇슬가요?

朴 그러케 말슴하실줄알엇습니다 그러나 내입장으로서는 꼭 우시는거기에 만족하게 대답할수업게되엿습니다 그야 녀점원도, 보통녀자들과 다르지안호니까 철을따라 심리적변동이 생기는때가 웨업겟습니까 인왕산허리에 아지랑이 갈불고 봄볕이 파릇파릇 싹틀때면산에도 오르고십고 들에도 가고십겟지마는 여기드러와서일을보게되이상엔 그런자연적으로 발로되는 심리는 될수잇는대까지 꺽거버리려고 갑부들이 노력하야 한주일에 한번식 각게의명사를 초빙해서 점원들을 일동에게 수양될 이야기를해줍니다

記者 녀점원으로 결혼한사람이잇습니까?

朴 업습니다

記者 상점에선 어린사람을 요구합니까 나만흔사람을 요구합니까?

朴 너무 어려도 안되지만 스물살넘은 사람도 별조와요、

記者 그것은 무슨까닭입가요?

朴 어린사람은 손님을 잘대할줄모르고 큰사람은 손님의심리를 잘아려서하는까닭에 손님의마음을 유쾌하게해드리는 관계지요

記者 단지 그것뿐일까요?

朴 그외에 다른것이 잇슬리가 잇겟습니까?

記者 묘령녀성은 아름다웁게보일뿐아니라 또 자연적법칙으로 사람을—특히 남성을 유혹하는매력을 가젓기때문이아닐가요?

朴 글세올시다

記者 손님이 녀점원에게 호의를 가지는일로해서 무슨 문제가 이러나는 적은 업습니까?

朴 그런일이 잇슬가바서 미리 예방하느라고 아츰 저녁으로 무한히 경게합니다。

記者 점원들사이에 연애문제가 이러나게되면 어떠케합니까?

朴 그것도 역시 미리방비하지요、상점내에서는 둘이서로마조서는것도 금합니다 남녀는 말할것도업고 녀자끼리 식당에갓다오는 여가에서도 서로 손을 잡는지 엇개를 겻는 일은 절대로 금합니다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발로되는심리라고하지만 일하기위해서모다막어 버린다는 말슴입니다 그럼으로 무르시는바에 응하지못함을 심히미망해 할뿐이외다 (和信百貨店 朴周燮氏談)

가치이서보는눈

大好評

短時日에빗나는 料理솜씨

오는十日부터五日間 (午後二時부터同四時半까지)

第二回中國料理講習會

講師는斯界의權威 鄭順媛女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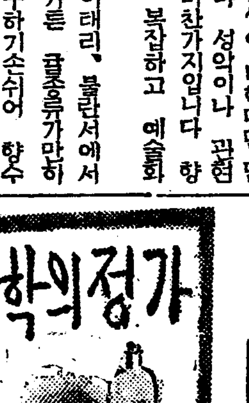
◇會費 壹圓 (但每日드는材料實費는各者가分擔해야합니다)

◇場所 西大門町一丁目三三京城女子基督靑年會館 (아주개전차정류장바로압입니다)

◇申請期間 三月九日까지主催側으로即接申請하십시요

主催 女子基督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학의정가



『케로이드』정형수술

問 생은십구세청년이온대 작년에 안면의 병으로인하야 수술한것이 현이생기여 작년가을대 학병원 정형외과에가서 수술을한번하엿스나 의사의말이 케로이드상태질이되여 곳치지못한다고하여 방관중입니다 엇지하면 조홀가요 (愛讀者 美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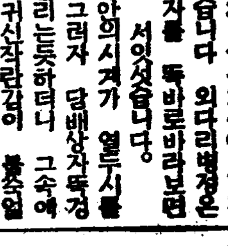
答 『케로이드』가 되는체질의 사람은 아모리 정형수술을 하여도 소용이업시 점점 더흉한 『케로이드』가 생기어서 보기실케됩니다。근래정형수술과 동시에『렌트겐』치료를 하면 다소예방할수 잇는듯하오니 한번만이방법을 실험하시고 만의에 실패가되거든 단념하시고 그래로두는수밧게업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흉이 좀잇기로니 상관이 업습니다 북에해롭다는 미신에 혹하지말으시고 얼굴의 흉을 자랑삼는 저 독일 청년의 긔풍을 생각하야 모조록 락관하야 보시는일에힘쓰시기를 권합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醫學博士 金晟鎭)

우리차지

아지머니가 어려서 부르든 노래 란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낭게 안찌마라
녹두곳치 떠러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글사람 장희철)



月波先生 【十】
宋影 作 / 金熊超 畵

는 엇개를겨우고잇기는하엿다 일종에 모욕이다

『이미정해노신일이지만 나는 그일을 감당치못하겟는걸요』

김참봉은 벌서 월파선생의 속을 드려다보앗다

그래서 슬적 농치는 목소래로

『하지만 선생님 아니시면 할사람이업습니다 저건너 박선생도 선전원으로 추천이되긴 햇읍니다마는 그저, 말하자면학교선생으로잇는 관게로 그럿케된것이죠—실상잇기는월파선생님밧게는…허……』

하면서 말끗을 옹음으로 호려버렷다

면장도

『하여간 노인네가 젊은때보다는낫으실테죠, 허…… 그리고 뭐보다도 요새 젊은사람은 근본적인학문에는 무식들하니까요 허……』

구장도

『사실 학문이 근본이죠』

이 세사람의자부는바람에 월파선생도 넘어갓다

김참봉은 걸걸한목소리로 맛장구를친다

『원 천만에요 모두 면장영감의 지혜이죠』

『원 천만에요 모두 김회장의 덕택이죠』

『그러치요 두영감의지혜이고덕택이죠』

마즈막판으로 구장이 두 영감을 다가리 올니엿다

선생은 묵묵히 안저서 담배를 피고잇다

김참봉은 새로히 긔성된 공립보통학교창립긔성회의 회장이되엿다

면장이 고문이요 또 중추원 안에사는 일본내지인으로부자가되야마모도도 고문이되엿다 감동리 구장은 평의원이되고 건너말선생과 이곳 월파선생은 선전원으로 추천되엿다

이 일행이 방문은 목적이 추천되엇지를 전하며 따라서 원조를 해달나는 인사차례하려는데잇다 자본은 면민에게 납세내는 등급별로 긔부를것게되고

그외에 이면안에 땅을가진 부재지주에게도 약간식 것기로작정이되엿다

이 일행은 벌서 대촌리방선생에게로것처서 오는길이엿섯다

면장은 다시 말한다

『이번에 우리긔성회에서는 만장일치로써 선생님을 선전원으로, 추천햇습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선생님께 이뜻을전하고 따라서 만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온 길이엿답니다 허……』

『원、천만에요 나가튼 늙은페물이 뭘을알아야 말슴이죠』

『아이구 넘우 겸사에말슴이심니다 선생가트신 어른이아니면 이 직책을할사람이 업습니다

이번일의 성패는 오즉 선전원되시는 어른의활동여하에달녓다고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월파선생의 자부심은 고개를들엇다 비록 외교로하는 것해무슨말이라고하지만 하여간 챗켜옴는것에는 만족을가기지안홀수가 업섯다

『누구누구인가요』

구장은 면장이 대답도하기전에 가로차며 말햇다

『선생님하고 저건너 젊은박선생이랍니다』

『네、박선생하고요』

월파선생의사색은 금방변하엿다 오월동주도 분수가잇는일이다 만일에 선전원이 명예스런일이라고하드라도 박가놈 젊은패와

『그럿쵸 지금 모든 신학문도 실상은 한문에서 모두나왓스니가요ㅣ정말이지 요새젊은청년은 경조부박한편이만치요』

면장은

『그럿구 말구요』

월파선생은 더ㅣ큰목소리로

『요새 신학문에 철학이라는것 그것도실상은 중용한권에서 쏠녀나온것이죠 정치학도 모두가 예전문서를 요새말로 돌나꿈여논폭밧게는아니되죠』

김참봉은

『참 월파선생 께서는 엇더케 신학문에 까지 통하시엿습니까?』

『원 천만에요 조금 짐작만하지요 허……이건 다 우순소리지만 언젠가 젊은사람들 압에서 내가 유르의 만유인력이니 빠테리아니 수증긔니 전지니 나파른이니 하고 몃마듸 말을 햇드니 깜짝들 놀나든걸요…허……』

『그럴것입니다』

월파선생은

『그럿은 힘자라는대로 심부름을 해보죠、참 저의 의숙에서도 몃칠안에 학예회를 하겟습니다』

『네!』

세사람은 놀납다는드시 일제히 밧븐을 햇다

『그저 힘자라는대로 하로저녁 아이들의 재조를 나타내여볼가 하는데요 허……』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三月四日부터三大名畵封切

空中肉彈隊 全三回中 第一回上映

無電非常線 主演 안세리단 마크마리

俺の運ちゃん時代 ハヤブサヒデト 主演 大河百々代

蔷花紅蓮傳 監督 李明雨 撮影 洪性夢 錄音 李弼雨 (京城撮影所第三回作品 全發聲版)

西部活劇 冷藏庫의秘密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劇 그날의眞心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三三三番

三月三日부터 夜間七時부터 靑春座第三回公演

新版 長恨夢 四幕六場 李守一…沈影 沈順愛…車紅女 金重培…徐月影 白樂觀…黃澈 崔萬鏡…池京順

李雲芳作 失樂園 二幕 明玉…池京順 嘉童…沈影 炳植…徐月影 蓮月…金仙草 總角…朴齊行 主母…南宮仙

九月山人作 喜劇 急性戀愛病 一幕 女雨情(文士)…沈影 金榮植(그의친구)…黃澈 吳善慶(文學少女)…池京順 林淑貞(榮植의妻)…南宮仙

東洋劇場 竹添町一ノ 電光三三四四

上映時間表 三月四日より三月十日まで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地獄囃子後篇 め組の喧嘩 花嫁くらべ 終演九時五十六分

▲地獄囃子後篇 右太プロ・サウンド版

▲め組の喧嘩 下加茂吉例春の顔見世 長二郎・好太郎・浩吉・縣之助・歌子・久榮外總動員

▲花嫁くらべ 島津保次郎作品 蒲田トーキー お雛様より美しい、十一組の花嫁、花嫁のオンパレード・桃の節句にふさはしい、この名篇 十一日より、與太者と若夫婦 秩風森の石松

洋畵專門 浪花館

朝鮮歷史學의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批判 (五)

洪起文

何如튼 이때껏 나의 論證은 丹齋가 歷史學者로서 成功하지 못하고 失敗하얏다는것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그와가튼 歷史學者에게 向하야 天才的眼光이 荊棘을 뚤어 비친다는것은 다 무엇이고 敎전은 著作으로써 만혼

◇遺 產을 相續시키어준 다는것은 다 무엇 인가? 그러나 위선 이러한疑心을 가지는 것은 怪異치 안하되 지금이러한 詰難까지를 하려 덤비어서는 性急한 行動이다. 왜 그런고 하면 그러케 말한 나로도 반드시 理由가 업지 안할것으로 그러한 理由를 차차 陳述하지 안할리 업는까닭이다.

누구든지 丹齋의 著作을 읽는다면 맨첫번 그의創見이 豐富스러운데 놀라지 아니치 못하고 또 다시 그와가튼 創見이 豊富한데 놀라지 아니치못한다. 그 創見의 內容檢討는 勿論 딴 문제지만은 凡庸한 人物로서는 그 創見을 처다 보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平壤浿水考를보라. 箕子에對한 辨證을보라. 壇君의三京五部說을 보라. 하다 못해 갓신동傳을 淵蓋蘇文의事蹟으로 대는 그것을 보라. 적어도 거긔서 그의 뛰어난 天稟만은 認定할수잇지 안한가? 더구나

◇前 後三韓考를 보라. 그 사람으로하야금 의天稟을 우러러 보지 안코는엇지견될수잇게 하는가? 흔히 世間에서는 丹齋의史腕을 일컷한다 歷史學에 手腕의 腕字를 부치는것은 벌써 그方法의 非科學을 表彰하는것이다. 그러나 丹齋는 確實히 卓越한史腕을 가지고잇다. 그의 史腕아래 歷史는 일헛든망정 超倫絶群의 天稟만은 빗내고잇다. 丹齋以後 그와 同一 乃至 類似한 傾向으로서 朝鮮史를 떠드는 사람이 하나둘 아니언만 丹齋를 肩隨할 사람은 실상 멧몃치나 되는가? 大槪는 尋章摘句로써 잔갈질에 끄치지안는다면 排他自誇의 一層誇大가 아닌가? 丹齋로부터 一步前進은 커냥 幾十幾百步下風에 떨어저 잇다. 方法은 갓고 天稟은 모자라니 그여시 怪異할것은 업는 일이다. 或 一部의

◇徒 輩가 丹齋를 웃음 게말한다고 하나 丹齋어이 容易하리? 다른 모든것은 다 고만두고그 天稟만으로도 실로 超絶한바이 잇지 안한가? 더구나 丹齋는 朝鮮史學의 先驅者가 아닌가? 지금 朝鮮歷史를 말하는사람으로서 間接直接 그의 影響을 밧지 안한 사람이 그누구인가? 그러타고 丹齋의 學說을 無條件信賴하려서는 안되겟지만은 丹齋를 함부로 侮蔑하는것은決코 容恕치 못 할일이다. 先輩者를 尊敬하고 또 先輩者를 正當히 批判하고 그래서 그의 끼친 業績을 아프로 繼承하는데서 科學徒는 一切의그들 非科學徒로 더부러 判異한 態度를 가지게된다.

그뿐이 아니라 丹齋가 歷史學에 잇서서는 不幸히 失敗하얏다고 하더라도 그가 딴部門에이르러 成功한것까지를 否認해 버리자는것은 決코 아니다 내가 이러케 前提하는것은 장차 丹齋가 歷史學보담도 딴

◇部 門에서 成功하고잇 다는것을 指摘하려 는 것이다. 丹齋는 巨大한史料學者요 巨大한 考證學者다 아조 分明히 말하야 巨大한 史料考證學者다. 本來 史料란말에는 廣狹兩義가 잇서서 廣義로서는 史料全部 狹義로서는 그中의 文字로記錄된 史料만을指稱하는것인데 지금 말하는 史料는 廣義가 아니요 狹義라는것을 注意하야 주기바란다. 또 史料學에는 蒐集 考證等 各個의 工作이 다 다르더로 그의 史料學은 오즉 考證에 偏重되야 잇스매 考證學 乃至 史料考證學이라고 말하얏다는 것까지한께 說明하야 둔다. 그러나 狹義의 史料學은 歷史材料에局限한 文獻學이라할것이요 所謂 淸朝의 考證學은 그역시 文獻學以外 더 지나지 안는다. 그러니까 나는 巨大한 文獻學者로서 丹齋를 發見하고자하는데 지나지 안는것이다.

吏讀文名詞解釋法을 보라. 三國誌東夷列傳校正을 보라. 三國史記에 對한 그의

◇校 正을 보라. 그以外 에도 各篇에 허터저 잇는 史料의 考證을 보라 그를 巨大한 史料考證學者로서 일커름이 決코나의 誇張만은아니다. 나는 丹齋의 價値를 正當히 把握한데 對하야 아니새로운 丹齋를 發見한데 對하야 내대로의 굿세인 自信을 가지고 잇다.

歷史를 硏究하는데는 史料를 必要로하고 史料를 取하는데는 그 的確性을 몬저 究明하여야 한다. 그것은 廣狹 어느意義의 史料든지 다마찬가지다. 그럼에 不拘코朝鮮의 歷史學者들은史料의 的確性을 究明하려는 아모런努力이업시 오즉自己意見에맛는것을뽑아오고 맛지 안는것을 버리기에만 汲汲 하얏다. 오즉觀念論的歷史學徒에게뿐이 아니요

◇科 學的歷史學徒에게까 지 이러한 弊害가 흘러오고 잇스니 더한層嗟嘆을 禁치 못 할바다.

그러케 보아 丹齋는 실로 巨大하다. 그의業績을 正當히 繼承할 科學徒에 向하야 그著作의 必讀을 勸하고 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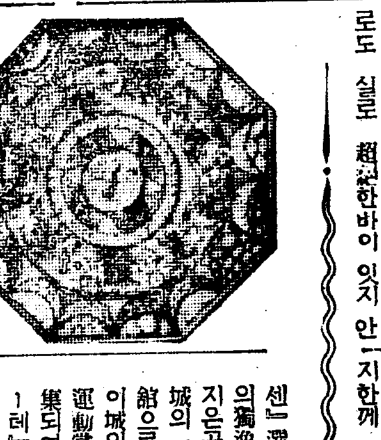
漢詩

春雪—押風 選外佳作之六

桐崗考選

永興郡 韓斗淵

朔風餘勢過東風。
故遺雪花飛滿空。
初疑樹裏探·蝶·
了見泥邊留爪·鴻·
似纖復密和烟暗。
乍積旋消向日融。
三白知應從臘後。
老農處處占年豐。



宗敎改革 博物館開設

【『아이제낫하』(류ー링겐)發同盟郵信】『류ー링겐』州『아이제낫하』附近의『왈르부르그』城은 宗敎改革의火花를날리든『마르틴·루ー텔』이 一五五二年『작센』選擧侯의庇護下에서 聖書의獨逸語譯及多數의 讚美歌를 지은곳으로서 有名햇는데 이 城의一部가 最近宗敎改革博物館으로서 開設되기로되엿다. 이城의집웅밋房에서 宗敎改革運動當時의 貴重한文獻이 蒐集되어잇고 그中에는 詩人『괴ー테』의 肉筆로된 同城의寫生畵가잇다고한다 獨逸에서는 專門家學者들이 이博物館의開設을함께 待望하고잇다.

南行詩抄 (一)

昌原道

白石

솔포기에 숨엇다
토끼나 꿩을 놀래주고십흔 山허리의길은

업데서 따스하니 손녹히고십흔 길이다

개멀이고 호이호이 희파람불며
시름노코 가고십흔 길이다

궤나리봇짐벗고 따스불노코안저
담배한대 피우고십흔길이다

승냥이 줄레줄레 달고가며
덕신덕신 이야기하고십흔 길이다

더거머리총각은 정든님업고오고십흔길이다

時調 書帖 (三十六)

간밤에 우든여흘 슬피울어 지내것다
이제와 생각하니 님이울어 보내도다。
저물이 거스리흐르고자 나도울어보내리라。

(失名氏)

四六四『온스』의 大金塊公開

【모스크바發同盟郵信】最近『우랄』山의 金鑛에서 四百六十四『온스』나되는 大金塊가發見되여 世界의 注目을 끌고잇는데 이金塊가 今番『모스크바』의 國立財寶蒐集部에原形대로 永久히 保存되기로되여잇다 이金塊의 形狀은 長方形인데 表面은 數千年에亘하야 물에싯기고 잇섯든때문에 매우밋그럽게되엿고 다만 兩側에 多少鈍한 金色이번쩍이는데 原鑛으로서는 드물게 볼만치 完全한것이라고한다。이밧게도 이와함께 掘土된若干의 銅의原鑛도 陳列하여두기로되엿다고한다 따라서 財寶蒐集部에서는 舊帝政時代의 財寶其他를 陳列해두는 蘇聯의 唯一한 機關으로서 陳列品은 全部大衆을 爲해公開하기로하엿다한다

朝鮮文壇의 現代的諸相

——藝術的認識의特殊性——

④ 韓曉

그러나 이境遇에잇서서『典型』에對한 具體的見解를가지지안흐면 자못그것까지도 原子論(機械論)에陷溺시킬危險性이 잇는것이다. 푸리ー체와그의追從者들은 이러한原子論的危險性에서 解脫되지못하는것이다.

◇典 『典型』그것은 決코 다른 型과의機械的關係에서抽出되는것이아니라 도리어그것과의必然的인關係方의因果性에依하야 抽出되고發展되는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그의對立者、即敵對的인다른典型과의關係에잇서서 그의社會的階級的性格을表現하며 또한그敵對의解決을期할수잇는것이다。그럼으로 맑스가말한바『부르조아社會의胎內에發展되고잇는生産諸力은 同時에그敵對의解決을爲한物質的條件을 만드러내는것이다。그리하야 이社會構成과함께人間社會의前史가 終幕을告한다』는原則은 藝術의領域에잇서서의 이러한『典型』의創造에對한 必然性을强調하는것이아니면아니될것이다。

以上에잇서서 나는主로認識論的側面에잇서서 至極히斷片的으로 藝術的認識의 特殊性이라는 側面을가지고 問題를論議하여왓다 問題는勿論 여기에서 挫折되여서는아니된다。그것은 다시方法과世界觀과의 關係의解明에까지 發展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그것은 上記한바의 一部觀念論的文藝學과 그리고 푸리ー체의

◇追 從者들의사이에서 犯行 되고잇는一切의 無原則 한迷妄이 이問題에對한 正確한意見까지도 抹殺하는過誤에까지 絡繹되고잇는까닭이다.

× 藝術에잇서서의 世界觀의問題는 前者의觀念論的迷妄과 機械論的偏向의 克服과 다시새로운創作方法의確立等의 諸般中心的인 課題와聯結되여 現在過程하고잇는바 우리들의 一切의文學的現實에잇서서 應當網羅히論議되어야할것이엿슴에도 不拘하고 우리는너무 그것을敬遠하여왓다 더욱昨年度에잇서서 安含光金斗鎔兩者等의 創作方法에關한 論爭에잇서서도 唯物辨證法的創作方法에對한 批判과아울러 該問題에關한 正確한論議가 當然히 잇서야할것이엇스나 우리들의論爭은 그의闡明을가지기에는 너무나論爭그것에만興奮되여 性急함을 犯하여왓든것이다 그런데 最近에일으러 이러한 一種의 過誤(過誤라고하면 우리들의 過誤일것이다)의 틈을타서 一部文學的 魔術師들은 依然來時의 氣勢로서 藝術과 世界觀과의 機械的分離를 高調하는한편 그것을다시藝術과 政治와의 分離의

◇妄 動에로 發展시켜서『人生을爲한藝術』과『藝術을爲한藝術』의復古的狂想曲을演奏하기에 餘念이업는것이다(白鐵氏의『人間探求論』『文學』誌의卷頭宣言 鄭寅燮、李軒求、金文輯 金煥泰氏等의 諸論文、李泰俊氏의創作評等等)

여기서 우리는當然히 우리들이 犯해온바 一切의無原則한迷急을 揚棄하고 眞正히沈着性잇는 論理를가지고 該問題에 對한解明을가짐으로써 그들魔術師들의 假面을剝奪하지안으면 아니될것이다

우리는 如何한 境遇에잇서서든지 世界觀과方法과를 決코同一한것으로서는 생각하지안는다 레ー닌이말한바와가티 藝術의本性과 事物그것의辯心法에 適合한 藝術的認識의 特殊性을認定하는見地에서의 兩者의辯證法統一을 우리는承認할따름이다 그러타고또兩者의機械的分裂을 말하는것은 決코아니다 方法은 一定한이데올로기ー的領域에잇서서의 藝術的認識의特殊性에適合한 世界觀의 獨自의肯定이다 그것은勿論 作家가作品을 製作하기前에 먼저 그의

◇世 界觀에適合하게 想을構 하지안흐면 아니된다는 그러한公式的 圖式의偏見과는辛辣히 對立되는것이다。

그럼으로 方法과世界觀을同一視하는偏向이다 또그것을 機械的으로 分裂하려는偏向이다 그의文學的態度에잇서서는 根本的으로 相容되지안는 一方誤謬라는同一線上에잇스면서도 正當性과法勢되는尺度는 兩者가共히똑가튼 地點에서잇는것이다。

그러면 混同과分裂에서 胚胎되는 根本的誤謬의根源은무엇인가! 그것은兩者가共히 新興階級의世界觀의本性에對한 無智及新興階級과 社會的發展의歷史的諸傾向과의 相互關聯關係에對한 沒理解에서 胚胎되는 不可避的인誤謬인것이다

齒牙의福音

—無痛切齒法의公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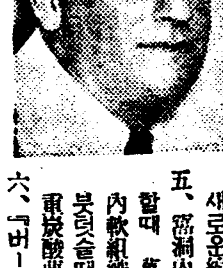
『하ー트만』博士의功績

齒科醫學界에서 오래동안 宿題가되여오든 無痛切齒法(Desensitizer)는『하ー트만』(Hartman)博士의 十八年間努力한 硏究한 結果로 發明되엿스나 博士는 여기에對한巨額의 特許權讓渡申請에도 應하지안코 오직 公益을 爲하는마음으로 全世界齒科醫學界와 一般社會民衆에게 公開키爲하야 昨年十二月紐育에서 열닌 齒科醫學會에서 그處方及使用法을 發表하엿다。

處方

『티몰』Thymol 1¼
『에틸·알콜』Ethyl Alcol 1
『에ー텔』Sul Phric Ether 2 (重量計算)

以上의 藥液을褐色硝子甁에密閉해둘일。栓은『콜크』



或은 鋼鉛으로 著錄한것을 씀일 本劑의半『온스』는數者二百名의 治療에足함

使用法

一、本劑를적은 綿球에若干 적서서 齲窩나 또는 象牙質面에直接 그局部에注意하야 塗布할일
二、以上의方法으로서 齲窩의軟化象牙質을 除去한後 다시 應用의必要할때도잇슴
三、藥液을 무친綿球를 그局部에 대일때는 大人은 一分半、小兒는一分의時間이로함
四、반드시 그應用할部位를『라바담』으로 完全히防濕하거나 또는 綿卷으로서 簡易防濕을함 때는 그局部齒齦에 우선『산다라크、퍼ー늬시』를塗布해서 藥液에依한腐蝕을 防止할일 以上의 操作이맛치면 窩洞에 藥液을塗布하고 곳 새로운綿卷으로밧꾸어둘일
五、窩洞內에 藥液을 使用할때 萬若잘못해서 口腔內軟組織、더구나 齒齦에 붓텃슬때는 七퍼센트의 重炭酸曹達로 中和할일
六、『버ー』或은『카보란담、포인트』를使用할때生하는 熱은 齒髓에 爲害作用을 이르키는때문에 助手로하여금『에야시린지』로서冷却식히고 同時에削破粉을 除去할일
七、本劑를使用한 窩洞에濕氣가드러가면 效力을일흠
八、金冠3/4『크라운』及『비이러ー』等의 支臺齒形成의 際는 먼저 琺瑯質을 除去한後에 本劑를使用할일 이러한때의 藥液使用時間은 二分間。但、『버ー』及『카보란담·포인트』를 支持的으로使用하지말일
九、本劑를 應用하는齒科醫師는 반드시齒牙解剖學을充分히解得하고 熟練한技術을要함。

注意事項

一、藥液은 褐色甁에貯藏하야 强한日光을避할일
二、藥液은 恒常 新鮮한것을 使用할일。그럼으로一時에小量으로調製할일
三、處方에依한藥品을 配合할때 그比量容量에依하지말고 重量에依할일
四、本劑는 다만 局部效力을낫타냄
五、本劑의 浸透力은 制限되여잇슴으로 浸透되여잇지안흔 深部의 象牙質은 다시 疼痛을 이르키는때문에 軟化象牙質을再三應用할일。

隨筆 銀杏나무 (下)

辛夕汀

저 銀杏나무나 二十餘年이되엇다하니 이상한것은 그老人ー옛主人ー이 銀杏을 땅에파고심든때가 바로 그마을ー琴山里ー에서 내가떠나오든 해가아니면 그이듬해의 일인것이다。

三十餘年前 이고을에서 돈과 名譽와 모든權勢ー封建主義時代의 가장

末期 에잇서서ー의 敗北者가된 나의 아버지는 隱遁과 學究의 聖地로 이 琴山里라는 마을을 골랏다。그것이 三十을 넘은 靑年時代의 悲壯한隱遁에斷行된 아버지의 끌으고 끌라서 세번ㅅ재옴기게된 隱遁所이엇다。邑近傍에도 조흔 마을이 잇섯건만 이러케 떨어진 海村을 求하게되것은 아버지의 맘ㅅ재동생이 그마을넘어 洞里에서 묘히 지내고잇슨것이 한 原因、또는 儒學의大家 田艮齋先生이 바로 그마을에서 北便으로 바다를 건너 十里남짓한 界火島라는 섬에 게신것이 그 原因이엇다。아버지는 世事를잇고 家事를不顧하고 界火島講堂에 한번들어가시면 한달도게시고 보름도게시는것이 예사이엇다。그때 열살이게우넘은 兄도 공소매부친커다란 周衣를 떨치입고 아버지를 隨行햇스니 집에는 누님과 나와 어머니가 남엇슬뿐이엇다.

지금 생각하여도 세간도 놀아본사람이 업섯스니 기구한것이다。지금도 역여히 생각되는것은 어두운밤중에 잔등넘어裴씨닙에서 알나락을 가저다가 누님과 어머니가 절구질을하야 밥을쪄야 찐능 만능한

玄米 를들고 어미업는 병아리새끼처럼 머리를 마조대고안저서 아궁지에너는 불빗에 비처가면서 누님과 나와 어머니가 뉘(나락)를 가리든일이 아스므로하게 잇처지지안코 떠돈다。누님은 그것을 記憶하고 게신지몰으나 어머니가 萬一들아가시지 안엇스면 나는 그이약이를 몃번이나하엿슬는지몰은다。

그러나 그러케窮한 세간에도 어머니는회를 내시지안엇다。界火島에서 아버지가나오세도 어머니는 조음도괴로운빛을 내지안흐섯다。그리고 아버지도무서운가난이언만 決코 憂鬱한얼골을지여 우리들을 對하든것을 나는記憶하지못한다。그때의 아버지는 한學人이아니라 淸貧을 즐기는 한求道者엿다고 나는생각한다。

나는 이러케 가난하고도 平和한家庭에서 어릴때를 자랏다 내가 열살이되든해 이른봄에 우리家族은 또그마을을 떠나왓다。저 銀杏나무主人이 그해ㅅ봄이아니면 그이듬해ㅅ봄에 銀杏을 땅에무덧슬것이다。그銀杏이 땅을뚤코나와서 二十年이 지낸오늘 누님은시집가서 늙은 어머니가 되여가고 어머니는돌아가신지六年이지내고

白鬢 가허ー연 아버지는昨年에滿甲을마즈시고 兄님과나는 네아희의아버지가 되엿다。그리고 그마을을 떠나오든해 두살ㅅ재나는아우는 지금 두살먹은 어린애의 애비가되엿다。

멧칠前에 저 銀杏나무가지에는 兩便귀밑이 하ー연山ㅅ새가 와서 한참놀다가는것을 큰애와 어린딸一林이와가티 마루에안저서 바래보고 논일이잇다。큰애는 그이약이를 學校에서 作文으로지여서 先生한테 稱讚을바덧다는 이약이를 어제하엿다。

멀리 山ㅅ새가 갈곰찻처오고 가고 銀杏나무가 자라나는동안 나는 저 銀杏나무아래 안저서 묵은山莊 숲넘어로 멀리개인한울을 바래보면서 陶淵明의詩를 읇고 또 고요히 冥想할 한가한날을 꿈꾸고잇다。

노래를 잇지안흔『카나리아』

『부다페스트』에서는『폴·포더ー』라고 하는사람이『카나리아』에게 노래를 가르키는 音樂學校를 만들고 實地로 訓鍊을 해보앗든바 鶯이나 다름업는 相當한 實績을 나타내엿다고한다。

(寫眞은『카나리아』敎室(左) 새소리를 採譜하는『포더ー』氏(下)와『카나리아』의노래(右) 訓鍊의實況。

漢詩募集

題 春雲 —押 花

三月十五日限

薄謝進呈

危機의自然科學

그超克의길은무엇인가?

② 金宬圭

이러한 物理學의 發展은 絶對로 衰退가안이오 死滅이 안이다。發展이 矛盾을 包含함이오 前進이 舊殼을破壞하는것이다。現代의 理論物理學의 發展에『不安』을 보고 『危機』를보며 그것이

◇舊態 의改變과 낡은것의새로운것으로의 止揚을 보지못하는者는 卵의破殼를보며 雛鳥의 誕生을 보지못하는者다 다만 注意할것은 止揚하는 主體도亦是 낡은그것이안이고 새로운그것이라는것이다 세로운主體의理論—世界觀은 辯證法的唯物論以外의 아모것도안인것이다 나는 以下에 理論物理學의 危機의本質을 다만 物理學自體의 發展過程에딸아서 哲學과 關聯식히어 究明하야보랴한다

(二)

年代順으로본다면 問題는『프랑크』(一九〇〇年)가 輻射法則을 假定하는데 量子說을 導入한데서 부터 始作된다。그러나 이것은後에 量子論을 論議할적에 問題삼기로하고 至今은『아인스타인』의·特殊相對性原理(一九〇五年)의主張부터 들기로하자。

『뉴ー튼』力學에잇서 絶對空間의設識이 可能하얏다는것은 空間에잇서

◇一定 되여잇다 고하는 絶對 靜止의基準的座標系 卽慣性系의 決定에 結付되여잇기때문이다。他方에잇서 光과 電磁氣의媒質로서의 에ー텔의假定은 에ー텔이 絶對空間의役割을 代行하게 되든것이다。『로ー렌쓰』가 에ー텔에對하야 物質의運動이 如何히 影響하는가를 研究함에 至하야 光學的現象에잇서 有名한『마이켈손』(一八八一年及八七年)의觀測實驗이 擧行되엿다。그結果는 光速度不變의 法則을 齎來하고 그뿐이안이라 놀나웁게도 에ー텔의存在自體에 疑惑을 抱懷하게하엿다。『로ー렌쓰』(一九〇四年)의努力은 數學的으로 이困難을 어느程度까지 克服하얏다(로ー렌쓰變換)하나 이問題에 對한 明晰한 理論의 確立은『아인스타인』을 待望치안으면안이되엿다。

이 에ー텔의否定부터 有名한 相對性原理는 生기어난것이다。物理的媒質로서의 에ー텔의否定은 物理的空間에對한 새로운

◇解釋 을 要請한것이다。에ー텔의否定은 空間에잇서서 絶對靜止의 基準座標系의 實在를否認하게되고 따라서 空間에對한 物質의運動이라는것은 物理學的으로 無意味하다는 結論을 갓게되엿다。物體의運動은 반듯이 달은物體에對하야 相對的意味로써만 運動이될수잇는것이다。이結果로 空間과時間의 길이(長) 二點에잇서서의 同時刻性等이 絶對로 決定되는것이 아이오 觀測者의 運動狀態에依하야 달으다——即 時間及空間의 測定은 이것을觀測하는 坐標系에對하야 相對的이고 또兩者는 雙關的이라는것이다。

그러한中 時間과空間이 密接한 關聯을 가진것을 幾何學的으로 說明하야 有名한四次元의時空世界를 形成한『민코도쓰키ー』(一九〇八年)의 出現은 相對性原理의 根底에 一段徹底를 賦與하얏다。繼續하야『一般相對性原理』(一九一五年)가 確立되고 一九一九年에 英國日蝕觀測隊의 測定이 實驗的으로 이것을 確認함에至하야

◇光輝 잇는 相對性原理는 完成하얏다。『一般相對性原理』의理論에依하면『뉴ー튼』力學에 잇서 慣性系에 特別한 權利를賦與한 誤謬이오 慣性系와 其他의모든 空間座標間에는 相等原理의 關係가잇다고 主張하야 驚異할만한 萬有引力의理論에到達하얏다。『뉴ー튼』力學의 基礎인 慣性系는 無限遠方에서 萬有引力의場을 零으로한 特殊標系로서 是認되는것이다。

× ×

以上에 相對性原理에對한 歷史的說明을 하얏스나 이로因하야 空間과時間에對한 舊來의槪念은 根本的으로 變革되지 안이치못하엿다。于先이理論은 世界觀測ー記述의 相對性을 敎示한다。空間은 그自身 相對的일뿐안이라 時間과의關係에 잇서서도 相對的인것이다。(따라서勿論 時間自身도 相對的이다)。이意味에 잇서서 從來의物理學的諸槪念의

◇崩壞 가 이러낫다。即、絶對的空間=時間의 不變한尺度는 消滅되고 尺度는 所與의體系、太陽系、恒星系等等에 依存하고잇슴이 明白하야젓다。

季節의 沈默! 凍結한『나이야가라』瀑布

學藝雜錄

『펜나이프』로 實驗手術

【시템바ー그(트란스바ー르)發同盟郵信】南阿土人의 어떤 勞働者의愛妻가 盲腸炎에걸여 醫師에게 보엿든바 手術의 必要가 잇다고하엿스나 手術料를 낼 能力이업섯다。그래서 男便은 手術의 方法을 詳細히醫師에게 듯고 그翌日 病人의 房에서 異常한 悲鳴이들려와서 모다들 쪼차가 보니 男便이 妻를緊縛하여노코『펜나이프』로 盲腸을 除去하고 실로 배를 꾸여매고잇섯다 그래서 醫師를 다리고 왓스나 參考의結果手術에는 何等의缺陷이업고、一週間後에는 全快하야 勞働을 하여엿다한다。

讀者社交室

▲今月末日까지 醫院同業者一人을求하오니 留意하신분은 迅速히 左記住所로問議하시고 目的은如左함
一、滿洲方面大都會地에서開業함
一、資本金도 約一千圓假量
一、臨床에經驗이有한者
一、將來에滿洲國免許를願하는者
一、書信으로問議時三錢切手를要함 直接問議도許함
龍江面阿峴里五七二ノ七四號 梁福業白

▲저는醫藥에多大한趣味를두어 演習하려고하나 方式을몰으오니 玄濟明 姜弘植 金文輔 蔡奎燁 高福壽 金龍煥等諸先生任들의住所를 本欄을利用하여明敎하여주십시요 그리고藥器店에서店員募集을하신다면普通學校나겨우卒業한몸이오나同情하여주심을望하옴當年二十歲 陽化 李濟弘

▲貴社에서紙面을割하시고讀者社交欄을두어서全鮮讀者의愚昧한것을啓醒하여주심은感謝萬萬이로소이다딸어서小生의仰告하는바는 ×光線治療에關한말슴을쓰신李富鉉氏의住所番地를社交欄으로下敎하여주시옵소서! 市內一讀者

▲省略 左記詩集을求讀하라고하는데 詩集人의住所와 詩集의價格과發賣所의書店을 下敎하십시요
黃錫禹著의自然訟(本人의住所、價格、發賣所)
梁柱東著의詩集(住所、價格、發賣所)
朱約翰外三人著의詩集(同上)
毛允淑著의詩集(同上)
天路歷程(發賣所書店은어듸가요)
黃海道長淵郡苔灘市 孫政寅

▲拜啓小生은 普文試驗의受驗準備生입니다 法制學會發行의普文講義錄全卷가지신분으로 讓渡하여주실분은업스실는지요 有意하신분은左記希望條件과讓渡價格을通知하여주섯스면 感謝하겟나이다
咸南永興郡仁興面 旺場局私書函第五號

▲書籍交換하실분에게! 築者가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에서發行하는 普通文官講義錄全部(一年分)를 所持하온데 어느분이든지 世界文學全集(新潮社版)이나 其他古今東西文豪들의 全集이든지 相當히交換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本住所까지通知하심을 비랍니다
咸北會寧 李寅龍

▲生은二十五歲된男子이온대 生後어려서부터 前頭部가니머버스러저 毛生을시키러 여러가지 毛生藥을使用하야사오나 失敗로 歸하얏사와 貴讀者諸位에게빌리엿자오니 生과가튼生後毛生치안는대 毛生을 시키신분이 기시면 可能한生毛을爲하야 毛生方法과藥을下敎하심무萬바라나이다
金萬成

▲拜啓近來에 發行하는實驗果樹栽培法의 朝鮮語로서 良書가 有한 書店을 가리켜주시요
陽興邑花谷里 李龍治

▲生은『기ー타』를 좀 배호려고합니다『기ー타』獨習에 적당한책을 求합니다 또는 古物『기ー타』를 讓渡하실분이 게신다면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요.
安岳郡銀紅面渭井里 蔡宗淳

▲執行猶豫에處하야 잇는者로서 그期間中에朝鮮辯護士試驗其他普通文官試驗等에 應試할수잇슬니까 或엇던制限이나 업는지 알고저하오니 敎示하심을바랍니다
一、朝鮮辯護士試驗의 科目과應試資格과 試驗準備參考書等을 詳細下敎하시기바랍니다
(辯護士志願生)

黃昏 【27】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예감(豫感)(四)

경재는 감기로 며칠동안 자리에누어서 일지못하엿다。

현옥은 의학박사라야 한다고 제가아는 오바사를 청해오고 또 약도 때를 마추어 권하엿다。

그러나 신열이 몹시나고 가슴에 모닥불이 붓는것 갓해서 친절히 시중해주는것도 귀치안헛다。 해서 공연히 짜증을내고 거성질을 하군하엿다。

하지만 현옥은 거게서 일종의 새로운정을 늣겻다。

(나에게니까 그러치)

이러케 생각하니 경재가 페부어서 화를내는것이 도리혀 반가운일인것갓헤엿다。

그러는중에 경재의병은 의외로 속히 개버워젓다。 따라서 기분도 개버워젓다。

『똑 현옥씨 탓이에요』

하고 경재는 몽당비젓하게 말하엿다。

알아드러누엇노라니까 미상불 사람이 그립고 말것 간호해주는 사람이 고맙지안흔것이 아니로되 그보다도 알홍이 물러가고 건강이 돌아오는때의 맑고개벼운 기분이 각금 객담을 차자내게 하엿는것이다。

『글세요。 참말 저때문이라면……』

하는 현옥에게는 제손에서 회복되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라보는 만족한 감정이 어리어잇섯다。

『그럼 무엇때문이겟서요? 그날 나가지만 안헛드면야』

경재는 패니 남을가지고 성가시게 굴고십흔 들른생각이 낫다。 지금쯤해서 려순이가 차자오고 그리하야 현옥이와 한바탕 맛붙을노아주엇스면 어떨까하는 악취미조차 그는 느끼엇섯다。

『하지만 그전날밤에 발서 병원(病源)이 생겻는지도 모르지요……』

『천만에……그날밤에는 집에서 책을 보다가 그대루 쓰러저잠이들엇든데……오ㅡ참、 현옥씨가 오셧다구허구 안흘렷이지요? 그날이 바로』

경재는 번연히 그날밤에 려순의주인에 갓든것을 기억하면서도 이러케 말하엿다。

그리다가 그는 부지중 우슴이나서 겨혜노인 실과를 집어다가 한입에써버여먹으며 머리맛헤노인 꼿을 드러다보앗다。

그실과는 현옥이가 오늘아츰일부러 『미쯔고시』에가서 골르고골라서 사온것이엇다。

『아이 경질도 안베히겟……인주서요』

하고 현옥은 그것을 가저다가 겁질을 깍그며

『전 아직 약속을 어겨본 일이 업습니다。 존데가 잇는냥반이나 낡지가는줄도 시간가는줄도 모르지……』

『존데라니?……』

『말안할레애요』

『참 현옥씨……』

하고 경재는 우스며 오바사를끄리다가 흐닥지니 미혼전이니하고 빗대여 말을거나 현옥은암만 돌여마처도 안넘어간다는 태도엿다。

『자아 이거나 잡수시우。 기어히뜰아레방력양의 얘기를 듯고십흐신모양이나 인제그런 과오(過誤)는 청산하십시요』

하며 현옥은 다깍근 실과를 그의 코허리에까지 가저갓다。

『잘못이라구 잇서야지요。 아무런일두업는 사람이라야 아무잘못도 업다니까……하긴 잘못도 잇긴잇서야겟습듸다만 원악사람이 고지식해서……』

『늘 그날밤생각가튼면 다신만나지도 안헛서요』

『웨요?』

『열시까지 기다리니 어듸 오서야지요。 헌데 밤을 자고나니까 그만……』

하고 현옥은 약간 얼굴을 붉히며 다시 실과를 깍가서 쪼개노코 팔뚝시계를 보며

『자아 체온기나 끼서요……이번엔 악가보다 좀 놉흘걸요。 공상을 만히하섯스니까』

하고 라이트체온기를 끄내며 경재에게 맛기고 화병에 물을 가라너으려 나갓다。

어느새 석양이 되엇다。

바람에 나붓기는 심록색 포푸라입히、 마치 부드치는구슬과 가튼 잔잔한 소리를 내는것갓다。

전보대우에 안젓든 제비 두서너마리가 파아란하늘에 한일(一)자를 죽그으며 밋그러저날아간다。

솜가러 몽게몽게한 수다스런 흰구름이 남산머리우 나즌하늘에서 펼진도를 펴고잇다。 모엿다 헤여젓다하면서……초녀른기분이 완연하다。

화병에 물을 너어가지고 마루에올라서든 현옥은 주춤하다가 눈을 생끗하며 방으로 들어온다。 대문깐에 들어서는 려순이를 보앗는것이다。

(조녀 웨 또 온는거야!)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그렷다。

그러나 경재는 려순이가 온줄도모르고 한울만 처다보고잇다。

劇藝術研究會

九回公演을보고 (三)

朴英鎬

結果는 헛되지 안헛다。 柳氏가 겨냥한 翻案의 화살은 맛당이 차즐 관영을 的中식혓다。

여기서 筆者는氏의 非凡한努力을 再三致賀하엿다。 그러나한가지의 遺憾은 구김업고 眞迫力잇는 生生한 朝鮮農民現實의 交涉과 攝取가 열붕이다。 우리는現實의表面을 싸고도는 가벼운雰圍氣만을 羅列하는데 滿足할수는업다。 雰圍氣는 思想될수업는同時에 또는 무게잇는 文學도될수업다。 그것은 戱曲의政治性을 高調하는 柳氏에게잇서서는 더욱眞理가 된다。

그러나 氏가 陰森한『어둠의힘』의 朝鮮化는 우에서 筆者가 希望한意味의 朝鮮化가 아니고 어듸까지 原作中心의朝鮮化인同時에 우리現實에서 攝取한것이 잇다고하면 그것은 雰圍氣의蒐集이다。

이것이 氏를 向하는 가벼운 不平이다。 飜案者는 이作品의主題를 살리기위한 手段으로라도 근往朝鮮化에는바허구는 좀더現代朝鮮農民들이 가진 데리케트한 이야기를 揷入할 勇氣는업섯든가。

그리만 되엇더면 杜翁이 露西亞農民에게 베푼『리아리즘』이 朝鮮에서도 十二分의效力이 잇섯슬것이다。 한가지 飜案者와 아울너 遺憾되게 生覺하는것은『그무슨事情』이라는 曖昧한 事情으로 五幕이 三幕으로 줄어들엇다는 曲折이다。

眞實한意味에 잇서서 杜翁이 꾀한 情慾的人間性의 殘忍한一面은 四幕에 잇다。 그리고 無智와 淫蕩과 迷信의低氣壓이업칠낙 뒷칠낙하던 露西亞農民들의 어두운生活을 描寫한『어둠의힘』은 어둠의힘을 讃美하는데서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罪惡의 멍에를 버서버리고 靈魂의 救濟에서 건지어내는 懺悔의 大尾를만드는 五幕도 重要하다。

그러나 朝鮮化된『어둠의힘』에서는 그런熱烈한 靈魂復古的光明의一端을 볼수업섯던 슬픔이 크다。

그러나 이作品은 失敗보다 成功한部分이 만타함을 言明해둔다。 觀客은 完全히 舞臺的魅力에 사로잡히엿섯다。

舞臺와 觀客層은 統一된 感情우에 劇의展開는 興味의絶頂에 이르럿다。 間或 演出者의不注意로 말미암아 第一幕에 기동구동이에 세워노흔 빨내방망이가 終幕까지 잇섯던것、 二幕에 경오인은 사람이 連해 부채질을 하면서 登場햇다는것、 또 시굴農事꾼으로 레다이『허리끈을 맨것、 그리고 表生員의後娶崔氏와 떡쇠母와 春殺을陰謀하는場面에 넘우나 放心的인對話等을 除하고는 確實히 成功한 作品이다。

×

演技評。

表生員(金一英扮) 모름지이 前後아홉자리의 劇演公演을 通하야 그누구보다도 가장洗練되고 彫琢된 演技를 보엿다고 자랑할지하다 十二分의 執着心과 平凡한듯하면서도 緊張을 일치안는그의熱情的인 演技는 어떤職業劇團에 나서더라도 一毫의遜色도업슬줄로 미더진다。 흔히 우리눈으로發見할수잇는、 피가나도록 무섭게 吝嗇하면서도 이따금 精에어울니지안는 人情義理가 連해튀여나오는 兩面하고도 시끈둥한 시골農民으로의 살뜰냄새나는性格을 遺憾업시 演하엿다。 그러나 각끔 목소리가 애되게 變하는 것과『메리야스』속옷이 빼끔빼끔나오는데는 질색이다。 이것은 氏의 홀셀수업는 演技에 影響하바 크다。 그리고 一幕과 二幕에잇서서 몹시性格上 變溝가 생기는듯한 感이잇는데 이것의 不注意는 演技者보다도 演出者의 瑕點이다。

崔氏(吳泰英扮) 無難하엿다。 버릴것보다도 取할點이 만엇다。 放縱하고 情慾的인性格이 疑心업시 살엇다。 그러나 넘우扮裝이 애되엿다。 좀더 나히가 들어보엿서야 할것이다。 도모지 三十二歲의 中年婦人답지가안타。 그리고演習不足의 關係일지도 몰나도 말과動作이 이따금 連絡업시 틈이버는感이잇다。 極히 纖細한部分이다。 우에서도 말하엿지만 表生員의 春殺을 陰謀하는場面가튼대목은 좀더感覺的인 데리케트한動作이 잇섯스면 조왓슬것이다。

演藝

運河의微風 뷜라·푸레밍 監督、자크든·게이나와 新進헨리·폰다主演。곳은 紐育 時代는 지금으로부터 六十年前。물밀어드러오는 現代文化로 破滅되야가는 農村、그中에서 젊은沙工과農夫의 딸로부터 벼 저지는 戀愛의顚末。

實演은 新劇巡演을마치고 돌아온靑春座에서는 다시 市內東洋劇場에서 去三日부터 新版長恨夢、失樂園等을 上演하야 오는바 實演은長恨夢과 失樂園의 各 한場面

發聲映畵小考 (五)

—特히올·토ㅡ키에關하야—

林唯

映畵藝術에잇서서 會話나音詞는 다만 寫眞의一景으로서 全體의內容과는 何等關係가업시 다만自然音으로서의——銃聲이나高喊聲과가티 取扱할것에 不過한것이다。

그리고 그主題精神을 把持하는限 人間生活의 어떠한會話든지 音寫함은무방할것이다。

的誥解를 萬一그러한 精神밋헤 解釋한다 고할것가트면 적어도그것은 本質的이며 따라서 그러한種類의映畵는 何等의反對할理由가 存在하지안는다。

우리는 時時로 그러한精神밋헤서 製作된 올·토ㅡ키를 보고잇는것이다。

그것은 即例를 들어말하자면 二三卷으로된 짤막한 올·토ㅡ키다。

만흔 野外競技의實況이나 또는 陸海軍의出動等을 撮影한映畵가 即그것이다。

野外競技(蹴球나籠球는勿論)에熱中한群衆의 아우성소리、士官의號令、兵卒의報告까지가 全部英語로音寫되여잇는것은勿論이다、文字그대로『寫眞映畵』다 그러나 그것은 無聲映畵의寫眞映畵보다 훨신 自然에接近함은勿論이며 따라서 映畵的効果도 深刻하다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러나 좀더 重大한 注意點은 그것이 英語의토ㅡ키며『에스페란토』의토ㅡ키도되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如上한 種類의映畵에잇서서 人間의會話는『스지ㅡ(筋)』의進行과何等의 關係가업시 純粹의寫實的効果에 잇서서 自然音으로 取扱되엿기때문이다 이와가튼 正當한精神乃至 寫實的精神이야말노 토ㅡ키가進展할 未來性을 暗示하는것이라아니할수업다。

토ㅡ키로서 上論한寫實主義로 直行할것가트면 今日이 發達한映畵界가 開拓할것은 疑心할餘地가업는것이다。

그리고 純日象本位의『美術의길』과 一致되고 相互矛盾이업시 提携하고 効果的으로도 深刻한映畵藝術을 完成하게될것을 또한 疑心치안는다。

그러나 現今盛히 生産되는 올·토ㅡ키라고하는것은 그本質에잇서서도 舞臺劇에로 逆行하는것임은勿論이며 도리혀 映畵의健全한發達을 阻害하는것이라고아니할수업다。

더욱이 우리가 不愉快를늣기는것은『音』과『影』이 合致되지못하는點이다。

『音』만을重要視하기때문에『影』의關係가充分하지못하다하는것이다。

아지도못하는 異人의會話를들으면서 三分乃至五分까지를 가튼人間의 가튼姿態를 觀賞하는것은 참말退屈하기짝이업는것이다。

『音』때문에 『影』이 犧牲되는 現今의 올·토ㅡ키의未來는 짧다 아니할수업다。

4

그러므로해서 映畵藝術의나아갈未來는 漸漸『美術』과『音樂』에로 接近하게되지안흘가한다。

더욱히 美術乃至 音樂과가티 言語의人種的差別을超越하야 世界的으로 普遍될形式을取할것은 또한 머지안흔將來에 實行될問題일것갓다。

그리고現今의所謂올·토ㅡ키와 가티 言語의普遍性이업시 한民族에限하야 觀賞하게되는映畵는 두말할것업시 머지안흔 압날에『時代遲』의廢物로서 消滅될것도疑心할餘地가업슬바가안일넌지。

一九三六一月 平壤에서

海外映畵消息

『佛蘭西篇』

『자니타』(『알프렛드·로ㅡ드作品』) 『집시·오ㅡ케스트라』의 指揮者로서有名한『알프렛드·로ㅡ드』氏의 自社作品으로서『루네·카쇼ㅡ르』氏의『시나리오』를『피에르·카론』氏의監督에 依해서 그自身이 主演하는 音樂映畵이다。內容은『발칸』의 小國의 中尉와『집시ㅡ』계집애와의 이야기나노래와춤과 喜劇이잇서서 同娛樂所를 具備한作品이다。그리고『로ㅡ드』의統率하는 世界의『오ㅡ케스트라』가 거긔에肉慾的情緒를 내고잇다。 助演者는『미레이유·페레ㅡ』孃을 비롯해서『레이몬·코르디ㅡ』氏、『안드레·베르레』氏等、『카메라』는『부ㅡ르가스녹루이·파ㅡ돈』兩氏、

映畵界短信

佛蘭西파라마운트 大大的으로擴張

從前까지 S、A、F파라마운트의名稱으로 알리어젓든 佛蘭西 필림 파라마운트會社는 今番 보드빌會社及 그랑、시네마、프란세會社와 統一하야 名稱도 단지 필림 파라마운트로 고치어서 一大 佛蘭西映畵會社를 成立하얏다。 S、AF파라마운트會社는 巴里에本社를두고 佛蘭西內 六個의支社、北아프리카에 三個의支社、白耳義、瑞西에 各一個의支社及 파레스치나、埃及 시아리地方에 各一個의支社를 가진 映畵配給會社이며 보드빌會社는 巴里의 파라마운트劇場主人이고 그랑、시네마、푸랑세會社는 리트、란스에 一個式의 映畵劇場을 가진外에 스트라스부그와루ㅡ르에서 映畵劇場을 經營하고잇다。新設된 필림 파라마운트會社는 本社를 從前대로 S、A、F파라마운트社의 所在地에 두엇스나 그資本金은 二千九百九十萬法이다。但最高幹部方面에는 從來와 異動이업시 푸렛드、W、랑그가代表總裁요 안리、겔스펠르가配給部長이요 앙드레、유르랑이 劇場經營部長이다。

모리스、슈바리에 佛國映畵에出演

모리스、슈바리에는 포리、베르제르를 最後로하고 歸佛하얏스나 最近 마침내 渡英하야 英國캐프리스會社作品『사랑받는放浪者』에출드、베르한트監督에依하야 主演하기로 되얏다 이映畵는 英國版과 佛國版의 二種이 製作되다고한다。그러고 슈바리에는 自己의年來宿望이든 佛蘭西의 監督乃至脚本에依한 映畵에主演키로 되얏다。거긔에決定된 監督은 모리스、투르느르이며 脚本은 劇作家 루이、베르누이·유가슈바리에를 爲하야 特히 執筆하기로되얏다。이映畵의 撮影은 五月初旬이리라고 豫測되는바 이것도 英國版

라듸오

四日(水曜)

◇午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二)『스위스』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算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新聞과社會敎化』 柳光烈
◇同八時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小春香歌 郭山月 郭明月
◇同八時三〇分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 作品六十八 하이든作曲 가、프레스토 나、미누엣토 다、스케르잔도 二、絃樂四重奏 作品六十六 하이든作曲 라ㅡ르고 延專四重奏團

第一送放

◇午後六時 童話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一〇分 (東) 管絃樂
◇同八時四〇分 (東) 新內
◇同九時 (東) 浪花

五日(木曜)

◇午後〇時〇五分 놀냥外 一、놀냥 二、압산打令 三、뒷산打令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同三時一五分 食物講座『調理와營養』 金浩稙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西班牙멜로듸ㅣ 1、行進曲…길리니作曲 2、랑고…金珖國編曲 二、圓舞曲 1、묘쇼티스… 2、女學生…월르트이안作曲 三、크리안·라멘토이爾作曲 四、組曲青春…洪蘭坡作曲 五、…의行進…金珖國編曲 金珖國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講演『受驗의秘訣』 沈亨弼
◇同八時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令 吳翟琴 愼波 大琴 朴鍾懃
◇同八時三〇分 未定
◇同九時 俗曲 一、景福宮아리랑 二、咸鏡道아리랑 三、江原道아리랑 四、密陽아리랑 短簫 崔壽成 細笛 高載德 奚琴 池龍九
◇同九時二五分 詩調와譜書 一、詩調 二、三說記 李文源

第一放送

午前一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大)모던小唄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名)이야기
午後六時二五分 (大)趣味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舞臺劇
◇同九時〇〇 (仙)俳諧

六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東) 女聲合唱
◇同三時一五分 奉祝講演 地久節에當하야 張和順
◇同六時 童謠 忠信學院女生徒 伴奏 金龍燮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 舞踊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 生活과勸勉 李克魯
◇同八時 歌詞 一、白鷗詞 二、乾坤歌 文山紅 金錦桃 金永根 金一宇 大笒 杖鼓
◇同八時三〇分 野談 痛肝 申鼎言
◇同九時 (東) 室內樂
◇同九時三〇時 (東) 時歌

第一放送

◇午前一〇時 (東) 어머니의講座
◇午後六時 (東) 童謠劇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東) 御歌講話
◇同八時一〇分 (京) 新箏曲
◇同八時三〇分 (東) 長唄
◇同九時 (東) 室內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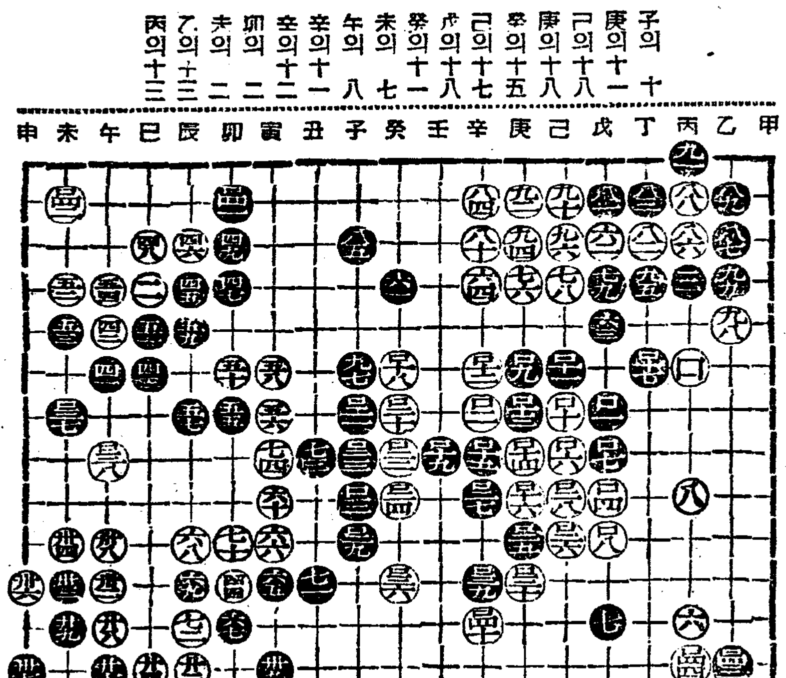
☆曆☆

三月五日 (木)
二月壬辛卯小 (十二日)
丙戌·土·角·成
◎祭祀裁衣動土上樑寅時開市納財에宜함
●驚蟄六日(舊十三日)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9=

白 丁奎春
黑 權秉郁

●二九 子의十
○三〇 庚의十一
●三一 己의十八
○三二 庚의十八
●三三 癸의十五
○三四 己의十七
●三五 戊의十八
○三六 癸의十一
●三七 未의七
○三八 午의八
●三九 辛의十一
○四〇 辛의十二
●四一 卯의二
○四二 未의二
●四三 乙의十三
○四四 丙의十三



◆觀戰者談

黑口二九(子의一〇)은 此際不可避也 白口三〇(庚의一一)은 戊의一八〇에 先侵擴張이 實利이엇다는 對局感想을 尊重한다

黑口三一(己의一八)은 賢明之策이다

黑口三三(癸의一五)은 尋常觀하면 緩漫한듯하되 黑의右下邊으로부터 中央貫通의 且長大石이 尙未完生하고 着白이 丑의五에 斜出할境遇에 中斷됨을 遠慮한 明見이다 假令 黑이 此手(斷)로卯의 二에 連立하면 白이 應手치아니할듯하니 同好人士에 質코저하노라

白口三八(午의八)은 應치아니하야도 無妨할듯하니 何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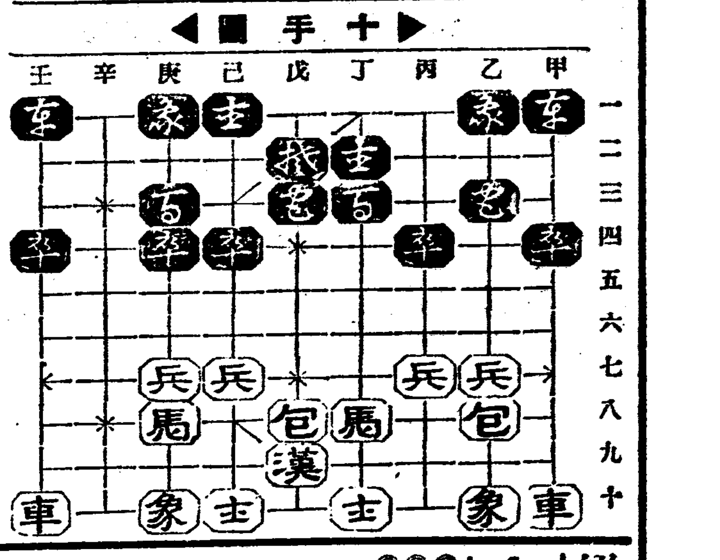
黑口三九(辛의一一)은 無意味한 듯하다

黑口四三(乙의一三)은 丙의一四에 防備가 碁筋(要點)인듯하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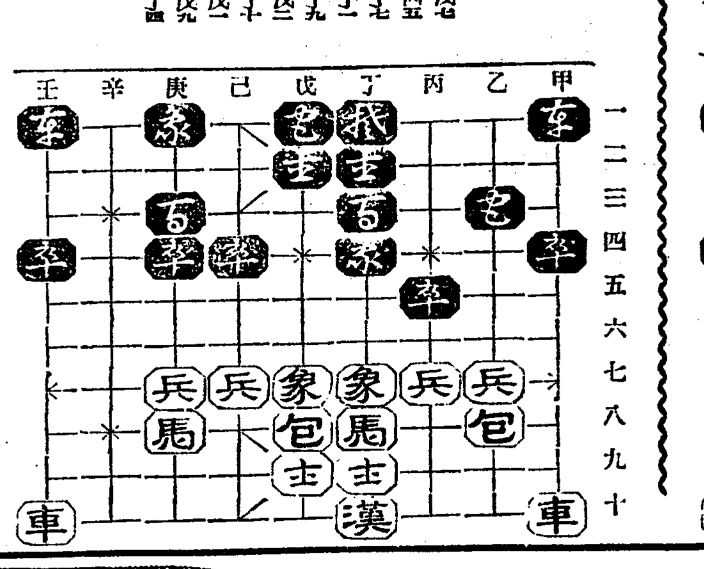
漢 先手 一兵減 李在鳳
楚 金漢榮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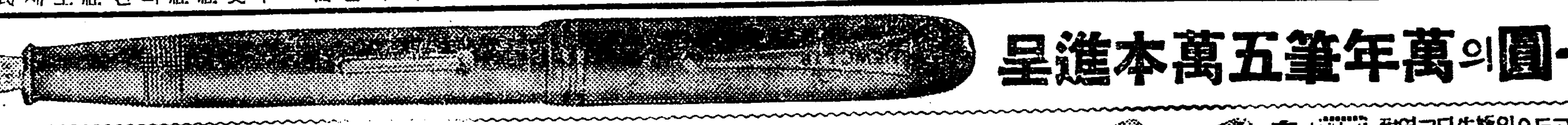


◀二十手圖▶

庚十象ー戊七
丙四[illegible]ー丙五
乙十象ー丁七
戊二[illegible]ー丁一
丁十士ー丁九
己二[illegible]ー戊二
戊九漢ー丁十
戊三[illegible]ー戊一
己十士ー戊九
乙二[illegible]ー丁四



定價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

絶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產ー大販ー市價의半額
◎靴文數를記入하야葉書로注文하시면代金引換으로即送함
◎品質耐久絶對保證반드시市價의半價以下로五萬足限大奉仕品
◎送料는買主負擔內地三十八錢滿鮮六十七錢

堅牢無比 靑年訓鍊總革靴◇
上等總皮製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底ー總革學生靴
絶對保證 二個年以上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總革 フレンチ型
本品은全部手製品이오 全部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先エナメル付一足 三十錢高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ポタン付先帕來エナメル付
短型靴 四圓五十錢

中學生用指定革靴
深型靴 五圓五十錢
十文부터十一文까지同價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化學의精華人皮의妙) 最新發明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二四(振替名古屋一七六)

第二次共青同盟事件 今明間送局豫定

남은被疑者六十餘名中에서 朱文楨等四十四名만

【咸興】작년십일월일일 반전데이에 격문다수가 정평주군내각처에 산포된것으로부터 단서가 드러나 함흥 홍남량경찰서원총동원으로 일시백오십여명의 대량검거를 보게되세칭제삼차공청동맹(第三次共靑同盟)사건은 그후함흥 정평량경찰서에 류치하여두고 한남경찰부원수명이 직접취조를 계속하든바 명춘전 겨우전반적취조를 끗마치고 금명간 주모자 주문정(朱文楨)한철환(韓鐵煥)등 사십사명만 긔소의견으로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하리라는데 이사건은특히 적색농조조직(赤色農組)에다가 공청조직(共靑組織)을 병행식힌것·즉하부조직인 적농(赤農)조원중에서 우수한분자를 규합하여 농조원을 측면으로부터 지도하기위한 공청반(共靑班)을 조직하여 장차조선공산청년회(朝鮮共靑會)의 조직에 진전하려고 하는것으로 그교묘한조직과 강렬한 투쟁의식에잇서서 아직 그례를 볼수업스리만늠한 확고한 지반을가지고 잇섯다고 한다

送局될被疑者

朱文楨(二三) 韓植宅(二二) 韓鐵煥(二六) 李炳權(二七) 韓武鳳(二一) 韓致濬(二三) 李範近(二四) 韓琫性(二一) 徐精奎(三〇) 朴癸(二五) 金紅朋(二一) 金奉梭(二三) 朱基學(三〇) 李琫植(二六) 朴重善(二五) 金京祿(二七) 申學八(二三) 任昊鎬(二三) 元會鎭(二二) 韓永石(二四) 李庚德(二七) 李範獻(二四) 宋命鶴(二四) 李培筠(二六) 金宗和(二二) 朱奎錫(二五) 尹三鳳(二四) 魏俊煥(二九) 李嘉鳳(二六) 韓麟吉(二三) 韓利燮(二四) 金萬石(二二) 韓鎭煥(二〇) 金三觀(二二) 柳濟煥(二五) 文仁卓(二二) 金生錄(二五) 柳萬杰(二六) 韓道吉(二三) 韓昕鐵(二七) 崔光烈(二四) 崔時吉(二九) 金弘理(二三)

四十八個班組織 二百餘班員獲得

咸興平野一帶를中心으로活躍 巧妙한그들의活動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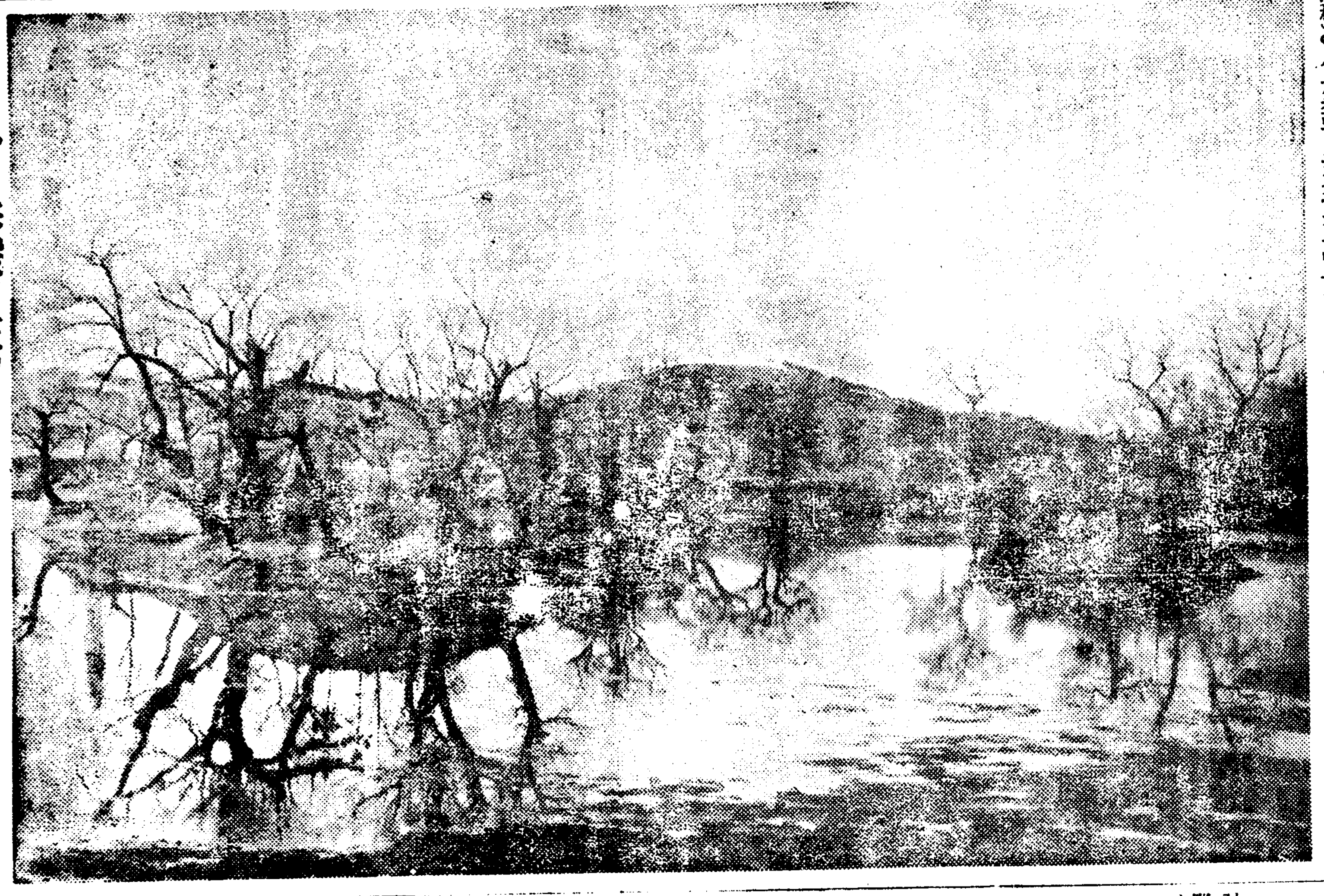
이제 동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지난 소화륙년 십일월부터 동칠년일월까지 로도 막사과(莫斯科)에서 개최된 국제공청동맹(國際共靑同盟)동양부 위원회에 조선대표로 출석하엿든 강목구(姜穆求)정태옥(鄭泰玉)의 두명이 『조선공산청년 제군에 고한』 다는 공개서간(公開書簡)(일명 일월테-제)를 가지고 조선공산청년동맹 재건의 중대사명을띄고 조선에 드러와 경긔、평안

함남 경남등 사도오부(四道五府)를 중심으로 공청 적농등을 조직하다 함흥서에 피검된 제일차공청(第一次共靑)과 그후다시 그후계조직으로 류축운(柳丑

震)등이 함흥평야(咸興平野)를중심으로 공청조직을 재건한 제이차(第二次)사건으로 겨우 활약도상에 올으고 잇는 공청조직(共靑)이 궤멸의상태에 이르게되자 전긔 이회의 검거망을모다 교묘히 탈주하엿든 주문식(朱文植)한철희(韓鐵熙)등이다시 삼차조직으로 널리 함흥、홍남 함주군에서 동지를구하하여 ×××함주평야농조조직준비위원회(×××咸州平野農組準備委員會)와 홍함적로조직준비위원회(興咸赤勞組織準備委員會)의 량지도긔관을 조직확립하고 함주군내의 천서(川西) 천원(川原)주서(州西) 주북(州北)상조양(上朝陽) 하조양(下朝陽) 삼평(三平)칠개면과 홍남공장지대(興南工場地帶)에 사십팔개조의 하부조직인 공청(共靑)농조(農組)적로(赤勞)를 조직하여 약이백여명의 다수반원을 획득하엿다

深山의"아지트"에서 機關紙等을發刊

이러케다수히 반원획득과 조직공고에매진하는일방 획득한반원의교양자료로서 함주군운남면운중리(咸州郡雲南面雲中里)김동산중 묘지(墓地)에다가『아지트』를정하고 긔관지인 공산청년(共産靑年)선혈구(鮮血球) 농민신문(農新)의 오륙종의 출판물을 매월일회식 수개월동안 간행하여발포하엿스며 작년『메-데』와 반전(反戰)데이 에는 격문수천매를 함흥평야 전체에 빼처산포흥은 점부하엿다한다 그리고 운남면운중리(雲南面雲中里)『아지트』에는 수개위 동혈(洞穴)을파고서 외면은집(藁)가튼것으로 묘하게『검포러-지』하여가지고는 수백권의 비밀출판물을장치하여 동지를획득하면 곳 책자를주어서 의식주입에로력하고잇섯다



◇……春暖이在邇……(昌寧靈山硯池所見)

開城商校卒業式 全部就職內定

【開城】개성공립상업학교(公立商業學校)제십사회 졸업식은 지난삼월 이일 오전십시 부터 동교대강당에서 거행 하엿는바 졸업생 삼십륙명중 우등생이오명이고 오개년개근생 오명과정근생일명이잇섯다는데 그들의성명과 졸업생의 지망별은 다음과갓다。

◇優等生 李奉九 柳瑛鉉 李敎求 黃潤克 河口蹊太
◇皆勤生 金在重 崔永鎭 金昌顯 李奉九 柳瑛鉉
◇精勤生 孫漢權
◇就職志望別=金融組合 一〇名 銀行七名 會社一名 鐵道五名 個人商業二名 自營二名 上級學校九名 計 三六人

金池兩氏努力 無産夜學開講

【兼二浦】황해도 겸이포읍판본정(兼二浦邑坂本町) 김수현(金守賢) 지원근(池元根)량씨는 항상 배움길이업서 문맹선

십이일부로나려 동야학원의 장래는 매우축망할뿐아니라 전긔김수현 지원근량씨에대한 동리의칭송은 나날이 노파가고잇다 한다

無慈悲한家主 借家人을不法逐出

什物을任意搬出、板壁鐵釘 主人公은進永重國某

【進永】소위 보제창생이란 간판을 내세우고잇든 공의(公醫)가 자긔소유인 세시집에 잇는 사람을 아무런 리유도업시 불법축출하야 그의생명선인 영업까지 끈코말게한일이잇다 사실은 김해군진영면진영리 조삼달(曺三達)이란사람이 수년전부터 진영시장(進永市場)압헤잇는 진영공의중국모(進永公醫重國某)의 소유가옥을 월세금칠원식에 빌어가지고 주상영업을하야 가족간 근근생활을하여오든바 별안간지난이월이십팔일에 가주중국모가 인부를다리고와서 전긔 조삼달이도업는사이에 집을 함부로 끌어내고 목판으로둘러막어서 사람을출입못하게함으로 삼달의 가족들이 애걸하다못하야 그의무리함을 말하엿스나 아무소용도업시 그만쫏겨나오고 말엇슴으로 그들은 조지에 영업을일코 생활상 곤난을겪고잇다는데 일반은 중국공의의 무자비한 행동을 비난한다고한다

借家人 曺三達談 수년전부터 그집을 빌어잇섯스나 이달집세밧게는 밀린것이 업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무말도업다가 별안간 나도업는틈에 남의 집을 함부로 끌어내고 목판으로 집을둘러장하야 사람을 조차내니 어듸이런법이 잇습니까 당초 계약에도 긔한정한일도 업고 자긔소용에따라 비워준다는말도업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무리한법을 당하니 참말분함을참지못하며 당장에 영업을 못하게되엇슴으로 사정이딱합니다

家主人 重國某談 조삼달에게 빌려준것을 이번에 도로아서온것은 집세를안 내다든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의 일이아니요 내가 직접소용이잇서서 그리한것이오 그전부터 예번이나 비워달나고하엿스나 종시듯지아니함으로 계약서에 내가소용이 잇스면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문구에의하야 부득이 조처한 것입니다

迎日漁組總代會

【浦項】영일어업조합(迎日漁組)에서는 지난이십팔구량일간 동조합루상에서 통상총대회를 개최하고 십일년도 예산중인기타 사항을토의하엿다는데 금년도 예산은 이십구만여원이라고한다

安岳高普期成에 各界義捐陸續遝至

鎭南浦無名氏의五百圓을爲始 盧享基氏도萬圓喜捨

【安岳】지난 이십륙일 긔성발회식을마치고서 지금까지 꾸준하는회사금은 사십삼만원을 돌파하야서 의외에 성적을 보게되엇는데 그중에는 진남포 무명씨(鎭南浦無名氏)가 현금 오백원을 동상위원제로 보냇는데 이를 바든긔성회의원전부는 감격에넘치어 마지안햇스며 긔성회발회식당일에도 대원면당산리박승빈(大遠面堂山里朴承彬)씨는 살님이 비한항에불구하고 이번고보 긔성하단말을듯고 넘어깃버서 농우(農牛)세필잇든데서 두머리를 긔성회발회식장까지 끌고들어와서 긔성회긔본금으로 제공하얏다 시가는두머리에 이백원가량이다 날를거듭하야 매일가리들어오는 희사금은 끄리를 물고 연하더니 지난이일 판팔리 로형긔(板八里盧亨基(六一))씨는 일만원의거액을 희사하엿다 그는 안악출생으로 유산도 유산이려니와 근검저축으로 수십만원의 재산을 이루엇는[illegible] 회사업에는 하나를빠지[illegible]업다가이번고보긔성에대하야도 자진하야 그와가티 거금을 희사하엿다 (사진은 盧亨基氏)

朴美道等釋放

【新義州】지난정월삼십일경에 금괴밀수혐의로 신의주서에 검거되엿 부내는 로송정(老松町)박미도(朴美道)외 한명은 검거된지사 오일후에 무사석방되엿다 한다

洪原公立學校 學級增設運動

【洪原】함남홍원공보는 지금구백여명의 아동을수용하고 잇는 도내에서도 삼사위를 다토는학교이다 동공보는 거금이십오년전인 대정원년의설립으로 상당한 역사를가지고 수다한인재를 배양하야왓섯다 그런데 금년에는 향학열과 인지의 발달로 매년취학 아동의 수효는 늘어가고 학급은 불족함으로 매학년초이면 동교마당에서연출되는 비장한광경은 참으로 볼수업는 현상이다 이와가튼 사정미련잇는 동교학부형들지방유지제씨는 이참경을 구출하기위하여 삼작년부터 학급증설긔성회를 조직하고 맹활약한결과 동긔금으로 일만오천원을 모집하여 가지고 상도하여 전긔사정 진정하엿는데 도당국에서도 여러가지 보참한점이 잇서서즉시 실시여부는 즉답지못하나 홍원공보에 대한 객관적 정세는숙지하는바이니후일 충분히 고려하겟다고한다 동 상도위원서한종(徐翰鍾)씨의 상경의위원은다음과가티말하엿다 금번 우리위원사명은 도당국을 방문하엿슴과 마침 한남도회의개최중이여서 지사는면회치못하고 학무과장을 면회한바 대단한호의로 홍원의운동정세는잘 보고들엇는데 이와가튼사정에 잇는 도에는 홍원의외에도 보학교가 만흔바 홍원은 특별히 사정이다름으로 숙지하엿으로 금후여러가지로 고려하려라고 하얏다 운운

天然痘猖獗

【新上】함남일대를 휩쓸고잇는 천연두(天然痘)는 필경 정평군(定平郡)에도 침입하야 현재 부내면(府內面)귀림면(歸林面)등지에 이십여명의환자가 발생하야 앞으로 더만연될 우려가 잇서 당국에서는 림시종두를 시행하는등 방역에고심하고 잇다한다

群山의多年宿案 商工學校의新設

來十二年度부터開校할豫定 工科에는電氣、機械兩課

【群山】군산부의원급 상의원(商議員)련합간담회에서 일부터 론의되엿든 군산상업학교(群山商業學校)설립에 대하야서는 그후 촉진위원들은 각방면으로 설립에대한 모든자료수집을부로 각방에공하야 조사연구중이든바지난일일 오후삼시부터 부청루상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교실현에 대하야 란상협의를 한다음 좌긔의『프랑』을세우고 일층더 맹활동을 하기로 하얏다 즉동교의 명칭은 갑종오개년제의 군산공립상공학교(群山公立商工學校)라하고 (공업과에는전긔 긔계량과를둔)개교는 소화십이년도부터 하기로하되 우선은 일、이학년까지는 군산상공학교(中學校)교실 일부를빌려 교수를하기로하고 경영은 총경비 이십사만원중 칠만원은 국고(國庫) 또 칠만원은 도지방비에각긔보조를밧고 나머지 십만원만은 군산부민이 부담을하되 이는전부 독지가의 긔부를 밧기로하얏다 한다

『府民一致의 聲援이必要』 促進委員 徐鴻善氏談

별항=군산공립상공학교 설립에 대하야 동교설립 촉진위원인 서홍선(徐鴻善)씨는 다음과가티말햇다。 군산에잇서서 상업학교의 필요를늣겨온제는 이미 오래이외다 그런데 이번에 잘하면 소화십이년도에는 상공학교하나가 설립될것갓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문제는조선인아동의수용문제인바 사가 반반을수용하도록한다하면 동교가 비록도지방비로 경영을한다고 할지라도 설립에대한 비용중 약십만원은 군산부민이 부담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게되엇는바 그러타면 그십만원중 오만원은조선인측에서 담당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올시다 그러한즉 일반부민들은 이번긔회에 일치성원하야 자여질들의장래교육에잇서서 백년대계를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이외다 운운

群山商工組合에서 려야커課稅反對

自轉車二重課稅라고

【群山】금번본도(本道)에서는소화십일년도부터 신과세(新課稅)로 자전거하재대(自轉車荷載臺)(리야커)세를 증수하기로하얏다는바 그말을 드른 군산상공조합(群山商工組合)과 군산수이입조합(群山輸移入組合)에서는 자전거세의 이중(二重)과세라고전긔『리야커』과세안절페에대하야도지사에게진정을하얏다한다

素人劇大盛況

同情金二百餘圓

【鎭南浦】진남포득신농창회(同窓會)주최와 본보진남포지국 후원의 소인극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 이일오후칠시반부터 극장항좌(港座)에서 개최되엿는데 모교를 위한 지성의모힘이요 우리공유사업을 위한 모임이니만치 륙백여명관중으로 대만원의 성황을 일우워스며 당일의 연금을 주신분은아래와갓다 고한다

三十圓姜偉情 二十圓阿部用來 十五圓尹基元 劉泰豹 文化醫院 十圓李鐵燮 金英奎 李顯柱 六圓 三吉洋服店 五圓 徐相峰 李東殷 魯起元 金建商店 貨泉商會 三圓 三和醫院 田仕文 李謙善 以下略

漁民울리는寒波

靑魚盛漁期到來나依然不漁로 漁港元山은極閑散

【元山】원산어항(元山漁港)의동결로인하여 어선출입이 두절되야 원산에잇는 제이구 저예망수산조합에서는 지난 이십륙일부터 쇄빙(碎氷)공사를 시작하야 어선출입을 꾀하얏스나 한파역습으로 쇄빙이 지연되다함은 긔보한얏거니와 이러케 수십년래 보지못하든 혹한관계로 례년가트면 발서 지난달 중순부터 청어(靑魚)가 잡히기 시작하야 요지음은 원산해안일대 및 어시장에 청어의 산이 싸다여질것이로되 금년은 아즉도원산만내에는 청어군의 습래가업슬뿐아니라 강원도 아야진(我也津)대포(大浦)방면에서 얼마간 잡히든것도 지금은 시원치안타 고한다 이러케 성어긔인 요지음이이려힘으로 일반 어업자들은 매우 초려하는중인데 이후에따라 청어시세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등귀하야 한바리에 일백사십원을 불으는 고가라고한다

飢餓에우는勞働者爲해 千三百圓을喜捨

南浦姜偉情氏美擧

【鎭南浦】진남포항은 근래에드문 류빙(流氷)으로 선박의 출입이 일체두절되여 진남포 일반상게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일방 젹이구의 칠할이나되는 수만로동자들은 이삼개월 동안이나 일터를 일코잇서 시급히구제책을 쓰지안흐면 긔아에당면된수만도 수천이넘는 참상임으로 부내 공생사장 강위정(共生社長姜偉情)씨는 그들구급책으로 구제미(救濟米)를 배부코저 조선인긔자단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하엿다함은 긔보한바여니와 긔자단에서는 지난일일부터 삼일까지 삼일간부내 각방면으로 단니며 실지조사한결과 시급히구제하지안흐면 사선에방황케되는칠백삼십사호를 조사하여 가족을따라 즉시 구제미(救濟米)를 분배하엿다는바 총두수가 일천사십두에 금액이일천삼백원에 달한다고하며 구제미 분배한것을 리별로보면 다음과갓다 고한다

億兩機里 七十三戶 百一斗 龍井里 百二十九戶 百七十九斗 麻沙里 八十四戶 百二十七斗 芝山里 五十戶 六十八斗 新興里 三十戶 三十六斗 碑石里 二百四十一戶 三百六十六斗 漢頭里 七十七戶 五十六斗 後浦里 八十三戶 百七斗 旭町 七戶 八斗 計 七百三十四戶 千四十斗
右金額一千三百圓也

記者團도蹶起 同情映畵開催

진남포의 로동자구제문제는 목하 진남포사회의 긴급하고도 중

待望의安州高普

─開校準備着着進捗─ 認可即時生徒를募集

【平壤】안주고보(安州高普)는신학긔부터 개교하기로되여 평남 학무과에서는 준비에 분망중인바 도학무과에서는 교사신축긔지(基地)도 결정되엿슴으로 총독부의 인가를 엇고저 등전(藤田)시학이 일체의서류를 휴대하고 이일상경햇다 인가가 되는대로 즉시생도모집에 착수하리만큼 평남에서도 입학지망자가 모집정원백명을 돌파할것으로 추측된다

可恐!腦膜炎과惡感

◇…全北扶安地方에大猖獗 十餘小兒의死亡을내여

【扶安】부안지방은 요지음 급작한 괴후로 악성감기가 류행하야 집집마다 신음성이 늘어가며 더욱히 어린아해들의 생명이 만히 희생됨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심히 불안한중에잇는데 부령면선은리(扶寧面仙隱里)에서는 십일내외에 아홉명의어린아이가 죽어버리기까지 하엿다하며 듯기만하여도 끔직한노척수막염이 역시 동선은리 김재명손(金在明孫) 김영갑(金永甲)(六)외한명을해하야 일시 그동리는 병의지옥인듯한 감이잇섯는데 위생당국의방역활동과 전동리의합심노력으로 지금은 겨우종식한모양이라한다

到處에狂犬橫行

【扶安】전북부안군내에는 저번부터 불비린의탓인지 도처에미친개가 횡행하여 일반은 불안중에잇다는데 아직은 사람에게는 회해가업스나 가축(개)에대한 피해가 만흔모양으로 그로인하야 광견이늘어 어린아이들의 밧갓출입은 자못위태하며 당국이 하로속히 야견박살을 해주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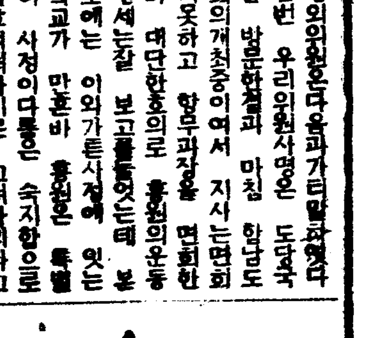
北方公普校新設

洪原郡의一面一校制 ─이로써完成實現─

【洪川】강원도 홍천군북방면(江原道洪川郡北方面)에는 아즉까지 초등교육긔관이 업슴으로 지방주민들로서는 일대유감으로 역이여 이문제의 해결을 북방면에 잇서서 가장 중대문제로되여오든중 최근에와서 군수김시명(金時明)씨열성과 노력으로 관민간 일치협력되여 소화십일년도 봄부터 본격적으로운동키로되여 북방공립보통학교신설긔성회(北方公立普通學校新設期成會)란 상설긔관을 조직하야 신설경비의 일부를 면민 일동의 성의로서 예상액 삼천이백원이 완납되여 삼일사월에 당국에 인가신청을 제출하얏다는바 신학긔부터 틀림업시 개교키로인가되리라한다

異次頓의死 【110】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공주는 품에 품엇든 칼을꺼내어 칼시집에서 빼어돌고 이차돈의 대답을 기다라고 섯다가、

『말슴 한 마듸면 이몸의 목숨을 살릴것을。이몸이 이 자리에서 이 칼 끗을 물고 업듸진 뒤에야 문을 열어 주시라오?』

하고 공주는 운다。

『무슨 말슴이나 밝는 날에』

하고 이차돈은 여전히 가만히 안젓다。

『한 마듸만、한 마듸만。이문을 열고 한 마듸만』

하고 공주는 더욱 느껴서 운다。

『무슨 말슴이나 밝는 날에』

하고 이차돈은 가튼 대답을한다。

『밝는 날이면 이몸이 원하는 대답을 하여주시랴오?』

『밝는 날에 두눈마마 겨오신데서 이몸에게 물으실 말슴을 무르시고 엿자올 말슴 엿자오리다。가옵 밤 바람이 차니 방으로 돌아가시겨오。』

『오、알앗소、알앗소。이몸을 달래어서 쫏차버리고는 대사는 이밤이 밝기전에 가만히 담을 넘어 산으로나 고구려로나 도망하시라고。아니、아니! 삼년전에 서방님을·일코 이몸이 어떠케 애를 끈엇거든。눈이 캄캄하고 가슴이 타고、밥맛이 업고、잠을 못일우고、아아 어떠케 애를끈엇거든。이제야、이번에야 아니、아니、아니될말슴。오 이몸을 속여서 떼고 달아나시랴으로? 아니、아니、아니될말슴。이몸이 죽어도 이 자리를 물러날줄 알고? 아니、아니、아니 될 말슴。이문 아니 열어주시면 이몸은 칼을 물고 이자리에 업듸저서、죽어서도 이 문을 꼭 지키고 잇슬것을。아아 이모 때에 죽어도 한번은 죽을이몸。고대 죽어도 아까울것도 업건마는 그러키로 이대도록 팔자를 박고、이대도록 망신을 하고、아이 분해라! 아이 원통해라!』

하고 공주는 꺼리는 긔색도업시 소리를 지른다。

이차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압으로 오며、

『공주마마!』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럿다。

그러나 공주는 이차돈이 부르는 말을 들엇는지 못들엇는지『우후후』하고 울음ㅅ소리를 내며 찍찍찍찍 신끄는 소리를 내며 가버리고 말앗다。

이차돈은 공주의 울음ㅅ소리와 신끄는 소리가 아니들릴때까지 나무로 짜아세운드시 그자리에 가만히 서 잇섯다。

『아아 내마음이 흔들리는고나』

하고 이차돈은 평양공주가 가엽고 여자의 친한마음에 바위도 움지긴다는 말도 생각해서 잠시는 마음을 진정하기가 어려웟다。죽엄을 무서워함도 아니오 유혹을 이긔기가 그리어려움도 아니나 그 유혹이 자비심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베어달릴 때에는 지실로 견듸기 어려웟다。

이차돈은、단정히 안저 부처를 염하고 백고좌사를 염하고 모든것이 다 헛되것이라 한울을 염하고 계를 지킨다는것과 마음을 움지기안는다는 파라밀을 염하고 언제까지든지 안저잇섯다。때때로 여자의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듯하엿스나 그것도 나무ㅅ가지를 흔들고지나 가는바람ㅅ소리만 여겨서 이차돈은 성정한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하엿다。

얼마나 때가 지낫는가。

이차돈은 제방을 향하고 가까와지는 발ㅅ자욱 소리를 들엇다。

『또 공주가 오시나?』

하고 이차돈은 눈을 한번 깜작하엿다。

『아모한 일이 잇더라도 이마음은 움지기지 아니하리라。눈압해서 공주가 칼을 물고 죽더라도、또는 공주가 문을 차고 들어와 그 칼로 나를 찌르더라도 나는 이 마음과 몸의 자세를 변함이 업스리라。벗을 지키기위하여서는 목숨도 아끼지말자는 맹세가 이런때를 두고 한것이다』

이러케 생각하고는 다 눈 가는스름하게 선정에 들어잇슬때에、

『대사님、대사님』

하고 문밧게서 부르는 황겁한 여자의 소리가 들렷다。

經濟解說

財界動態考察

大勢上根據諸點

◎ 申泰翊

그래서 나는앞으로의 財界動態에 對하야 다시 세가지 範疇으로 나와가지고 살펴보고저한다 即 첫재로 藏相의人物、둘재로 財政經濟政策의實情、셋재로 政局動搖如何에 觀點을 두어가지고 이로써 今後財界動態를 엿보라는 것이다。

(一) 滿洲事變을 發端으로하여 가지고 시작된 非常時內閣 그中에잇서도 未曾有의膨大한 豫算 即 膨脹한赤字公債의 發行으로 藏相의地位가 가장 重要性을띄여 그의 一擧手一投足은 財界에 밋치는바의 影響이 가장 重大하엿다 그뿐 아니라 이 難局에 依하야 時局을 左右할 이 藏相에 對하야 이러한 大藏大臣은 非常時局을 堪當할 에 足한人物을 要求케되는것이 當然하다

×

그럼으로 藤井前藏相은 多年의大藏省官吏로 잇섯고 또는 高橋藏相의信任을 바든 財政通의人物이엇스나 藏相으로서는 失敗의結果를 보게되고 또는 身病을 理由로하엿스나 結局 短命藏相으로 꼿을 맛첫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非常時를 堪當할만한 人望과 力量이 不足한데 그理由를 붓치게되다 이와 反對로 高橋藏相에잇서는 그의人望과力量은 一部로부터의攻擊이잇섯다 고 하드래도 이것을 能히 눌누고 自己의目標를 向하야 나아감에 足하엿든것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오늘에 高橋藏相만한 財政通의人物이 업는바가 아닌것이나 實際에잇서 軍部에 威嚴을 보히고 一面으로는 兩端으로 달아나는 大이를 또는 積極的財政으로 全化의擴大를 눌누고 그中間性의 公債漸減主義와 增稅尙早로써 財界에 急激한 變化를 안이르키게할만한 能力을가춘 力量이 잇는人物은 別로 업섯든것으로 보아도 큰틀림 이업다고 생각한다。

×

더구나 그는 어머 總理大臣을 지내엿고 또는 藏相을 일곱번이나 지내인 人物이만큼 그의財政政策에 對하야 反對가 생긴다고 하드래도 이것은 一部 또는 一時的에 끄치고 말엇다 이것으로보아서 그는 非常時局의藏相으로서 適任者이엇고 떨어서 그의功績이 相當하엿다고 할이 過言이 아닐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問題는 지내간일에 잇지안코 압흐로 잇다 即이처럼非常時局을 거의 혼자 또는 아주 까지 큰支障을 보지안코 料理해온 高橋前藏相의後任으로 누구가 될가 이것을 다시말하면 新藏相도 高橋前藏相과 가튼 人望과 力量이 잇는人物이 나오게될가 하는點이다 이에對하야 보는바에 딸어서는 時代는 變하니만큼 반드시 압흐로도 高橋前藏相과 가튼 人物을 要치안는다는말도잇다

그러나 아뭇든 非常時局이繼續되고잇슬뿐아니라 압흐로도 重大性을띄게되는바임 相도 高橋前藏相과가튼 人望과 力量이 잇는人物이 必要할것은 勿論이다 果然 누가 後任藏相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어떠튼지 지금에잇서는 어떠한人物이 되든지 그는 未知數에 屬하는 人物이 될것임으로 이것이 今後財界動態를 左右하는 要點이 되는것이다

×

(二) 後繼內閣의 財政經濟政策에 對하야 前回에서 말한바와 가티 健全財政으로 돌아가느냐 或은 高橋財政의 延長이냐 그럿치 안코 또 積極的政策으로 달아나느냐고 하는 諸觀測이잇지만 오늘에잇서 財政의實情은 容易히 急變의 全化를 보기 어렵다 即 內外의事情을 綜合하여보면 무엇보다도 國防費는 一層의擴充을 보지안흘수업는만큼 이點에잇서 後繼內閣의 財政은 全化의 可能性이 적다고 보게 되나 그러타고해서 高橋財政의延長으로 되겟느냐고 하면 이亦是多少修正을 加치안흘수 업는時期에 일을것도事實이다 이것은 웨 그러냐고하면 公債漸減主義로서 赤字公債가 이미 그限度에 到達됨을 보혓다고 하지만 一面으로는 軍事費의 增大가 解消할可望이 안보힘으로 赤字公債의 代身에 增稅財源의길을 찻지안흘수업게될 形勢에 잇다 그럼으로 高橋藏相의 增稅尙早는 後繼內閣에 일으러서相當한 程度의 增稅의 斷行을보게되지 안흘가하는點이다 —(繼續)—

軍擴、公債增發로 金利는 一層下落

◇……後繼內閣如何를不問코 金融去益緩慢之勢

어떤政府가 成立되든지 軍擴은 一段 拍車를 加케될것이오 五分公債借換도 當然行할것이며 또 公債增發도 當然 考慮될問題임으로 金利低下는 去益 濃化케될것이다。

다만 問題는 公債市勢인데 설령 一段低가 잇다드래도 어떤 程度의 工作이 當然히 行할것임으로 增發이 되어도 急落은 업슬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그리하야 軍擴에依한 인푸레强化로 金融緩慢은 去益濃化될形勢이라한다

金融界와가려 되는데 爲替手形의 念慮에 實方은 一齊히傍觀의 態度를 보힌다

金融界樂觀 公債買氣旺盛

【東京電話電通】突發事件勃發로 公債市場前途에對하야 幾分念慮가잇섯스나 月初가됨과同時에銀行方面도 急速히開放하야 市場資金은 潤澤케되엇슴으로 公債에對한 買氣가出하야 三日에는 日銀所持公債約百萬圓의 賣却을 보기에至하엿다 事件突發에도不拘코 右와如히 公債에對한 買氣가 衰지안흠은 財界特히金融界의平靜을證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다 日銀當局에서는 月央에進함에伴하야 漸次公債의消化도 旺盛케되고 一時問題이던公債市場의 前途에對한 念慮는全無하야 極히樂觀視되다고

米日爲替續騰

【紐育三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比較하면 賣卄九弗十五仙으로 五仙高이오 買卄九弗十仙으로 四仙高이다

東京爲替(四日)

對米 賣卄九弗八分一 買卄九弗十六分三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卅二分一

大阪爲替(四日)

對米 賣卄九弗八分一 買卄九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 買一志二片卅二分一

東京爲替市 結局保合終始

【東京電話電通】四日의 東京爲替市場은 米日爲替가 七仙이 續騰하야 二十九弗十四仙을報하고 正金에對米對英爲替를 據置하엿슴으로 아츰에도 多少强硬하엿스나 市中唱은 意外로 안축나가고 結局保合勢이엇다 即對米今月、來月物은 二十九弗八分一賣와 마찬가지에限하야 右呼價는 銀行間에 五月初가량까지 買方이잇고 一面 對英도 一志二片 一志二片二分一乃至二志二片三十二分一賣 同六十四分一의 買唱이며 期先은 一志二片三十二分一의 買唱을 하고 對英米가 모두 正

팔푸工業四會社 近日中認可될듯

【新京三日發同盟】滿洲國實業部에서는 去二月二十日東滿、滿洲、日滿、大同의 各팔푸會社로부터 팔푸工業에 關하야 申請書를 受理하고 目下該申請書에 基하야 審査를 行코잇는데 近日中에認可指令을 發할모양이라한다。이미日本會社法에 依한 會社設立을 了한 東滿、滿洲의 二會社及設立計畫中의 日滿、大同의二社도 實業部의 認可指令에 基하야 느저도 五月中에는 滿洲國法에依한 有限公司를 成立하고 解氷期를 待하야 一齊히工場建設에 着手하고 明年度부터 製品을 市場에내보낼 豫定이라 한다。

朝鮮電力會社 一千萬圓增資

朝鮮電力(資本金二千萬圓二分의一拂入)에서는 三陟開發의 計畫이進捗되여 三陟開發會社와 三陟鐵道會社의 二社를 直系會社로서 創立하고 開發에當케하기로되엇슴으로 此等二社의 株式拂込資金을得할 必要上電氣會社의 特殊性을 利用하야 一千萬圓의 增資를 計劃하고 目下準備中인바 增資株의 大部分은 東拓이 引受케될 模樣이라한다

京平送電線架設

朝鮮送電會社의 平壤京城間二百키로의 送電線架設은 宗多技師長의 實地踏査를終하엿슴으로右踏査에 基하야 三月中旬부터實地測量을하기로되엇고 京城變電所는 實電한京電과 合議後正式決定하리라한다

金融市場順調！ 日銀貸出預金減少

【東京電話電通】四日에繰越되던日銀帳面末에依하면 地方送金의中央還流、爲替銀行側의 吸收等에依하야 日銀返濟도 順調로進捗되고 貸出高는 繼續一億三千三百三十二萬二十圓의 大幅減少로서 十億三十七萬三千圓으로十億大台를割이오 預金도 市中銀行의日銀返濟를 主로서 一般預金의減收를 招來하야 四千三百三十八萬圓減인 三億七千二百八十九萬四千圓으로 四億臺割을 演하얏슴으로 結局兌換券發行高는 十四億五千六百九十六萬一千圓으로 繼續하야 一億二千三十九萬一千圓急收縮이오 十四億臺를陷沒하야 限外發行高도 漸次消減되고 金融市場順調의經過를 反映하고잇는데 四日도 繼續하야 大量의日銀返濟가잇슴으로 貸出兌換券發行高는 收縮一途이리라한다

三陟鐵道日間認可

朝鮮電力會社傍系會社三陟鐵道會社(資本金六百萬圓)의 鐵道敷設免許는三日總督府의 決裁를得하야 一兩日中에認可가될것으로 同社에서는 이것을 待하야十日以內에 創立總會를 開하고 五月부터 着工할러이다 同社는 우선 運材道路를開設키로되어 近隣入札에 附케되엇다한다

事態認識되어 日貨信用回復

【東京電話同盟】倫敦及紐育의日本貨債는 事件鎭定의 報로急速히 回復步調에 轉하야 二日은 英貨五分利半附公債는八十九二磅半、米貨六分半利附公債는 九十七弗四分三으로 事件前의 市勢에 接近하얏는데 三日까지에大藏當局에 到達한財務官으로서의 報告에 依하면海外市場의 日本國貨信用은 多幸히 大打擊을免한模樣으로 事件의 精確한 經過가 諒解되어 一、事件解決의 遷延한 原因이 戒嚴司令部發表의 一에 外國公館에 累를 及케하지 안흘 考慮에 基한것인것이 判明되고 二、鎭定과 同時에 時局收拾方策이 速히 進展되는中으로 最初의豫想는 急進的政府出現의 念慮가 적어진것 等의 眞相이 漸次認識되어結果로보이며 次期政權의 確立과 同時에 對外信用도 比較的 急速한安定을 보기에 至하얏다 한다

◆郵便局取扱手形交換

手形交換에 加入한 郵便局은 現在京城、釜山、平壤、元山、仁川、大邱、群山、鎭南浦及木浦郵便局의九局인데 昭和十年中에 郵便局의 爲替及振替貯金拂出證券과 小切手의 交換을한 總口數는 四十六萬八千九百七十三口 그金額은 一億六千六百三十二萬二千百十五圓六十五錢으로 그中郵便官署가 支拂한證券은 四十三萬二千五百九十三口、그金額一億三千四百七十七圓三錢이오 又郵便官署가 支拂을바든證券은 三萬六千三百八十口 그金額三千二百五萬八千六百三十八圓六十二錢으로 이것을前年交換高에 比較하면 郵便官署가 支拂한 口數는 約八分、金額은 一割三分 또郵便官署가 支拂바든 口數는 約三分 金額은 一割九分을 增加햇다 더욱 內譯은 如左하다

郵便官署가支拂한證券

種別	口數(口)	金額(圓)
郵便爲替	三六、五五九	九一、一五六、四九四、九〇
外國爲替	一、四六八	一六六、九二三、七四〇
振替貯金	八八、九五五	三三四、九六八、〇六八、七六〇

郵便官署가支拂받은證券

種別	口數(口)	金額(圓)
小切手	一九、八二一	三一、〇二七、六〇〇、六一〇
其他	一六、五五九	四一、〇一六、〇一〇

今日財界 (四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二高

三等米 一石 [illegible] 五低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一斤 價 三等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買 十三圓 [illegible]

銀 十九錢〇厘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 —

東新 — —

日產 — —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低

고무 現 [illegible] [illegible]高

午後一時부터 東京本社에서開催키로決定하얏다

株式 全國株式市場 四日臨時休會

【東京電話電通】東京、大阪、名古屋、神戶、京都、博多의 全國株式市場은 四日도臨時休會이다

各地모다 續休

商況 (四日)

朝取證券部 五日까지臨休

朝取證券部도 全國株式市場臨時休會에 順應하야 五日까지休會한다。

商議員會

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三日午後三時부터 商議員會를開하고 長短期建玉處理에 對하야 懇談하얏스나 東株、大株處理決定을待하야 四日午後三時부터 更히 商議員會를 開하고決定키로되엇는데 處理方法은 大體 日本內地取引所에倣하야 東新、大新、日産、鐘新의 四銘柄에對하야 半數解合을하게될模樣이다

東京有力銀行援助

【東京電話電通】東京有力銀行에서는 東株早受渡手形에 對하야 約二千萬圓의 融通資金을行하얏는데 今回更히東株에 對하야 受渡決濟資金으로서 約七、八百萬圓의 資金을 融通키로되엇다

東京株式長短 强制解合確定 六日부터再開?

【東京電話商通】東京株式取引所의長期五主要銘柄、短期四主要銘柄建玉의 半數强制解合은 三日總會에서 確定되엿슴으로 六日부터 立會再開모양이다

現品提供引受順調

【東京電話電通】東株의建玉處理는 長短共히 半數解合키로 決定하얏는데 이解合도 大體順調로推移되는模樣이며 그中注目되던 長期五銘柄現品提供分도 相當히 引受希望者가多하야 日産과如한 某有力側에서 一萬株의 一手引受가잇고 新鐘其他도 大體順調로 引受進行되는 模樣이다。이五銘柄의半數現物提供解合分은 株數九萬株로 代金九百三十萬圓이다

大阪短期 强制解合 四銘柄半數決定

【大阪電話電通】大阪株式取引所에서는 四日午前十時부터 短期取引員總會를 開하고 立玉處理問題에 對하야 協議된結果 左의 四銘柄을 半數强制解合키로 決定하얏다

大新 九〇、〇〇

東新 一五五、〇〇

新鐘 一五三、〇〇

日産 七三、五〇

大株長期解合

【大阪電話電通】大阪株式取引所長期取引員總會는 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開催하고 建玉半數解合을 決定하엿다

東新 三月限 一五五、五〇 四月限 一五五、五〇

新鐘 三月限 一五三、〇〇 四月限 一五三、〇〇

日産 三月限 七三、五〇 四月限 七三、五〇

大新 三月限 九〇、〇〇 四月限 九〇、〇〇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期米 反戾後에 伸惱

前場反高

昨後場阪地三十六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十錢인昨止同樣의 報를 擣하고二十八圓八十一錢인 五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十錢의 四番同價로續伸局二十錢까지 返戾止揚함을伴하야 九十九錢의 最高로 强硬히 場을止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八圓九十八錢에 一丁低로 始場後 三節九圓丁으로强하얏스나 五節八圓九十三錢에 更弛하야 伸惱하고 九十五錢에 止場하다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政策如何注目 新內閣組織後

東京事變이 突發한後 因而內閣의總辭職을 見함에至하엿다 果然新內閣에登場할人物은 누구이며 組閣後의政策은 또한어떠할지注目을要하는바인데 今回의事變이만큼 愼重히 考慮할것만은事實이다 擧國一致 强力內閣이出現되리라함은 唯一한 標語가되어잇는데 從前의 政策을革新할것도事實이다 平沼內閣이 組織되다할지라도 政策의革新을見하는 一方으로大財閥에 不知中影響이 미치게될것임으로 日本財界에 一波紋이 업지안흘것이오 뜰아서 株式界가 直接影響을바더 어느程度까지의瓦落을 免치못할것임으로 그餘波가 米界에까지 波及될것을 豫定히 豫期할수잇다 그러나 한모로는 農家로서도 關係로보아 絕對賣惜하든 手中米의 賣急을하지안흘가 함도 談도엇지아니하다 果如何?

市場六感

米 數段瓦落을告할듯하든市勢는各地共히 今朝一齊反撥을示하엿다 ▲그러나昨日反落의原因도알수업거니와 今朝反撥의原因도亦未知인걸 ▲그러고短貯解除後의 農家의態度도아즉알수업고 또新內閣도組織되기前임으로 當分此邊에서保合乃己? ▲果然新內閣組織에어떠한人物이登場할모양인구 ▲平沼內閣이組織된다 政策이얼마큼革新될것으로 누구나觀測 ▲革新이란意味는 具體的으로 解說하기難하나 그러나이번事變이事變인만큼 財閥들의打擊이 적지안흘것이라고世人은觀測하고잇다 ▲財閥이打擊을밧게되는때는 株式界가直接그影響을밧게될것이며 米界도 間接으로 그餘波를 受하게될것으로可期 ▲그럼으로大農家의賣惜方針도 多少別緩되어 一朝賣急의 手段을 取할지도亦未知 ▲何如間 米價의 大勢는春間의 一落을告하지안코서 騰하지는 못할듯하다고 商談이濃厚

當地中先縮稍 中限頑强으로

事變後의 市勢는各地共히 比較的平穩하엿스나 大體는 軟化의形勢로 阪仁共히 三十丁內外의 反落을告하엿더니 今朝부터는 俄然堅昧를添하야 約二十丁의反撥을告하엿다 그런데 就中先限과中限의 鞘는十丁未滿의 縮少로中限이 更一層强硬하다 此原因은 地場有力側인 金太店에서 中限의買玉을 絕對獲得하고잇는만치 容易히瓦落을 許하지안흘 모양이다。그러나 短貯解除後의農家態度가 多少軟化한觀이不無함으로 압흐로 產地의賣物이 漸次現出할것을 豫期할수잇스며 從하야 米價의反落을見하기도十常八九일것임으로 正米의賣勢를度外視할수업는定期도 自然그만한 影響을밧게될것이다 그러한點으로보면 아무리强硬한中限도 結局賣勢의威脅을 밧게될것임으로 軟派로서는 持久戰이得策이라고 云云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解合成立

【大阪電話】今朝堂島에서 當限昨後止價 三十圓六十九錢으로 一萬一千石의 解合이 中谷地場間에成立하엿는데 今明中에 一二三萬石의 解合될모양이다 堂島의 今市場主要한 賣買는 다음과갓다

▲賣方 朝鮮側 地場小口側

▲買方 潮先自己地場强氣派政

各地正米

京城弱含

雙方共히形勢觀望으로積極的으로不動이오 期米低를擧하야 唱은五錢下押인九仁三等二十八圓三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小弱

月初의日本內地賣行도 定期鈍重으로一向不振이오 人氣漸次低를不敗하야 更히五錢軟化인데 依然低價賣物은彭湃潛在하야 丸仁三等二十八圓五錢 四等二十八圓〇五錢 一等白米二十一圓丁

釜山下押

市場賣物三千叺産地는 依然積極的으로 賣物을出치안흐나 定期低를 移하야 移出側의總傍觀人氣이오 一般으로買氣不添으로 市況이極度의閑散을呈하야 僅히八八七叺의取引이잇섯다 角ㄱ三等二十八圓五十五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錢

大邱閑散

雙方의 氣迷가深하고 地方注文이적음과 相俟하야 商談이안되는態度이며 市況은 沈靜裡에保合인角ㄱ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群山同調

日本內地側의 注文이잇스나 定期低로 갈이맞지안허 雙方共히沈默을직히고잇다 菱ㄱ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木浦下落

正租의解除와要壞不安이 未解消이나 產地는低價賣物을出치안코 下落인丸木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錢 一等白米十三圓丁

預金貸出高增加

二月末京城組銀狀況

二月末日現在京城組合銀行의 預金은 一億六千七百三十五萬四千圓으로 二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三百三十萬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千二百八十九萬圓의 各增加이오 貸出은 一億五千八百四十九萬三千圓으로 二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五百六十一萬五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千二百五十六萬三千圓의 各增加를 示하얏다

咸南漁聯借換起債

咸南漁業組合聯合會는 昨年來道水産課斡旋下에 設立準備中이던바 一月末設立認可를得하야 이와同時에 舊高利債七十萬圓의 低利借換을 殖産當局과 商議한結果 高談이되어 二月末 總督府로부터 七十萬圓의 起債認可를得하얏슴으로 三月一日 殖銀引受下에起債하야 年平均六分五厘의高利債를 年平均五分五厘以下低利로 借換키로된바 起債內容은 如左하다

舊低利資金 二十萬圓 (年四分八厘와五分三厘의二種)

新低利資金 二十萬圓 (年五分三厘)

殖銀自己資金 三十萬圓 (年五分五厘)

聯合會事務開始는 四月一日의 新年度부터이다

蘇聯銑鐵十五萬噸 日本製鐵追加輸入

【東京電話電通】日本製鐵에서는 昨年十二月上旬 本年度分 蘇聯邦銑鐵輸入準備로서 銑鐵十五萬噸의 輸入契約을 調印하얏는데 其後 日本內地製鋼 鑄物兩業者의 銑鐵需用이 豫想以上으로 增加되어 供給不足의 傾向이 出現함에鑑하야 先般來 更히 通商代表部間에 本年十二月末까지에 따로히 十五萬噸의 蘇聯邦銑鐵을 追加輸入하기로 商談이 成立되엇다

經濟界消息

○東拓定時總會十九日再開決定=東京事件으로延期되엇던 東拓第二十四回定時總會는 十九日

"朝石"獨舞臺

內油四社는七月以降 販賣할수업다

朝鮮石油業令에 依한 外油二社를除한 內油五社에對한四月以降의 販賣配定은 三日午前十時부터總督府商工課에서 日石、三菱、小倉(展亡礦油)早山(東洋商事)內鮮石油의四社 代表를 招致하고

一、四月以降九個月間의 配定을 即時行함

但右配定數量은朝鮮石油會社가 製品의販賣開始를하기까지에 販賣할것으로되어 昨年의實績과 今年三月以前의 配定比率에 應하야 配定케되엇슴으로 結果內油側四社는 朝鮮石油의營業開始前 即六月末까지에 配定數量全部를 消化하고 七月以降은 販賣를 中止케될러이다 內油側四社對朝石의 本年度配定比率은 內油社의四割五分에 對하야 朝石五割五分이다

金融問題로暗礁 工業組合令難產 殖產、財務兩局相峙

近年 急速한 發展을 보고잇는 中小工業의 生產販賣의統制와 指導를 目標한 朝鮮工業組合令은 昨年末에 總督府殖產局에서 立案을 보아 그동안 關係各局을 巡하고 方今審議室에 廻附되여 잇는데 殖產局으로서는 하로밧비 實現을 보고저하나 財務局에서 異議를 提唱하여 組合令內容의 一部修正을 보게되던가할모양이다 即殖產局으로서는 中小工業者로 고무、양말、鐵工、電球、琺瑯、染色、人絹其他織物等業者를網羅하야 農漁村의 產業組合에 類한 機關을 設置코저하는데 單純한生產、販賣의統制나 指導、保護、補助等에서 다시 한거름나가서 業者의 金融에까지 進出하려함에잇다 그러나 財務局에서는 金融에關해서는 金融組合本位로하야 產業組合이나 公共團體도 모다 金融關係는 金融組合의 所管下에 두려는 一貫한方針을 가지고잇서 工業組合에도 亦是金融을 許할수업다는 것이다 압흐로도 同令은多少曲折이 잇슬모양인데 速하면法令만은 年內에 實現을 보게될모양이나 實際組合의 出現은明年에나 될모양이다

市場立會停止史 【下】

◆大正五年一月四日=一日도帳休 五、六、十二日十四日은 復休 四日은 全日臨休로株界反動으로

◆大正五年十二月十八日은 立會停止◆大正五年十二月二十三日早러 十八日까지 立會停止 十九日부터 二十三日까지 立會停止 十三日午前獨帝의諸和提議說이 傳해지고 大暴騰가 市場은 驚愕하야 買手續이며 人氣가 混亂그極에 達하얏다。

◆大正六年十月一日 東京大暴風雨로臨休=同十六日 卸殺納入으로臨休

◆大正六年十二月十日=東株新記錄으로 出火로 十二日까지臨休

◆大正十年十月十五日=十四日 獨帝의退位獨軍占領地撤退決定飛報로諸株一齊崩落十五日立會休止

◆大正八年七月十二日=戰後市勢出現豫想으로 取引所株奔騰이 더際에 東新株受渡紛糾가잇서臨休 ○同十九日과 二十日 現物取引受渡不能으로 東株新舊立會休止

○大正八年七月一日은 繕和條約成立賣氣로臨休、二日 東株四十圓高로 三日은臨休十日도臨休 二十五日 銀準整理로 臨休 株二十圓高를 비롯하야 賣買高新記錄으로 二日은立會休止 三日東株五百四十九圓九十錢 東新五百五十圓

○同十六、七日 十五日 大反動來로 財界動搖、恐慌場面으로 十六、七日 立會休止인바 大正五年十二月崩落以來의 現象으로 東京市場의 追證金六千百萬圓、東株八十圓低를 비롯하야 諸株崩落

○大正九年四月七日早러 二十八日까지 十四日早러 二十八日까지 前後約二十日間 立會停止=四月一日發會는 休會中氣勢를 受하야 人氣不振漸落이고 六日에 至하야 三月入組一億三千萬圓發表로 一層 賣氣銳沈、增田屋事로카銀行의 交換決濟不能、日蓄商事行衛失踪으로 總崩化、七日 市況은 收拾할수업서 連日臨時休會、仲買人任意解合으로 不能 全分子一掃、政府當局과日銀에對하야 救濟資金融通을맛고 十三日立會開始이엇스나 買方依然不利 綿絲大慘落으로 市場去益混亂 十四日立會前 東京大暴落報로 大阪市場當分休會 爾來綿絲及 期米暴落財界動搖이엇다。

◇大正九年五月一日早러八日까지立會停止=四月十四日 立會再停止以來 諸株氣配混沌 四國財界動搖로 六日까지 立會開始이고 十日에 立會開始

◇大正十二年九月一日早러十一月十四日까지 立會不能=一日 午前十一時五十八分 關東大地震發生하야 市場東株百二十五圓 新株九十四圓이던것이 其後東株 東株八十圓 新株五十圓

○大正十三年七月十二日早러五月十三日까지立會停止=金融恐慌 二億圓補償에關한 整理案이 議會에 提出되어 그內容이 判明되자 金融界大混亂을 招來하야다. 合銀과 其他銀行의 鈴木商店에 對한 放漫貸出이 四億五千萬圓에 達하야 恐怖不安이 極度이엇스며 大銀行續續閉門이 엇다。政府는緊急勅令으로써 二十一日부터모라토리엄을 發布하야 그期間中은 株式과各種商品取引所休業이엇다。

○昭和六年九月二十一日早러二十二日까지 二十四日早러 二十六日까지立會停止=英國金本位停止로 市場混亂이오 二十三日市場再開이엇스나 投物殺到 買方總退却이고 日中問題擴大、米國의 滿洲撤兵勸告說、中國의 日貨排斥等으로 後場休會後 立會不能이 엇다。

○昭和六年十二月十四日부터 十七日까지立會停止=犬養內閣이 金輸出再禁止의 大藏省令을 十三日公布即日施行함에依하야 十四日爲替三十四弗唱으로 平價引下說이생기고 市場人氣灼熱하야 東京市場은 東新百七十圓의氣配가 二百圓見되어 立會停止이엇다

○昭和七年五月十六日早러十七日까지 立會停止 五、一五事件(犬養總理遭難)에 생겨서 全國取引所休會

○昭和八年三月六、七日立會停止=米國의 休業銀行續出、모라토리엄施行、金輸出禁止濃色等으로 日本의影響을 念慮하야休會

○昭和十一年二月二十六日 東京事件으로 立會不能이던바 三月四日인 오늘까지 立會不能이다。(終)

金融 (四日)

◆海外經濟 (三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三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三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 (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花 [illegible]

◆京城油脂價 [illegible]

◆京城魚油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取期米 (四日)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	二八·五〇	二八·七八	二八·八一
二	二八·五四	二八·七四	二八·八一
三	二八·七三	二八·八〇	二八·八〇
四	二八·七〇	二八·八〇	二八·九〇
五	二八·八〇	二八·九二	二八·九〇
六	二八·八七	二八·九〇	二八·九六
七	二八·九〇	二八·九〇	二八·九五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滿洲大豆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多摩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雄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土金 福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石福鑛業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 電話本局四八五六